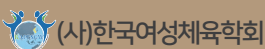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2022년 11월 17일<sup>(목)</sup> 14:00-17:30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

|주최/주관|








|후원|





#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행사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행사일** 2022년 11월 17일(목)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회의실(역사관 B2)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여성체육학회  
**후원**  대한체육회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11월 17일(목) 14:00-17:30

일 정		발표 및 내용
		사회 : 조은영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14:00-14:15	개 회 식	개회사 김민정 회장 (한국여성체육학회) 환영사 박보균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환영사 김태성 부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축 사 이기흥 회장 (대한체육회) 축 사 조현재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b>기념 촬영</b>
		좌장 : 박주영 교수 (숭실대학교)
14:20-14:50	주제강연	주제강연: 함께 이루는 양성평등! 같이의 무한 가치 - 발표자: 김도균 회장 (한국체육학회, 경희대학교)
15:00-15:20	발 제	발 제 1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 발표자: 황향희 교수 (강원대학교)
15:20-15:40		발 제 2 국제스포츠와 성평등(Gender Equality) - 발표자: 박주희 사무총장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15:40-16:00		발 제 3 한국형 타이틀 나인, 정말 필요한가? - 발표자: 김현수 前 단장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16:00-16:20		발 제 4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초등 체육 수업' - 발표자: 이해민 교사 (세종 연봉초등학교)
16:20-16:30	Coffee break	
		좌장 : 고은하 교수 (인천대학교)
16:30-17:20	종합토론	종합토론 •토론 1: 최윤소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 2: 주재현 변호사 (Espouse Earth 대표) •토론 3: 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토론 4: 남상우 교수 (충남대학교)
		사회 : 조은영 교수 (동양미래대학교)
17:20-17:30	폐회식	•포스터 발표 시상 및 폐회



# C o n t e n t s

## 주제강연

- 03**    **함께 이루는 양성평등! 같이의 무한 가치!**  
김도균 회장    한국체육학회, 경희대학교

## 발제

- 15**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황향희 교수    강원대학교
- 23**    **국제스포츠와 성평등(Gender Equality)**  
박주희 사무총장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 29**    **한국형 타이틀 나인, 정말 필요한가?**  
김수현 前 단장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 41**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초등 체육 수업’**  
이혜민 교사    세종 연봉초등학교

## 종합토론

## 포스터 발표



# 개 회 사

존경하는 내외빈 및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명한 하늘이 높게 느껴지는 가을의 한가운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 추계학술대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학술대회를 만 3년만에 다시 대면으로 진행하는 자리로서 직접 많은 분들과 현장에서 스포츠계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한국체육학회 김도균 회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황향희 교수님, 박주희 사무총장님, 김현수 前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장님, 이혜민 선생님을 비롯하여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오늘의 양성평등 문화확산 종합포럼이 진행될 수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님,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태성 부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후원과 축사를 해주신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님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사)한국여성체육학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2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지난 6월부터 시행하여 전국 7개 지역별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는 그간의 포럼 내용들을 종합하는 자리로서 학교체육과 스포츠 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체육 분야 성인지적 관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개인·지역 간 연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방법 모색과 향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나뉘지는 담론들이 스포츠계의 양성평등을 위한 값진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끝으로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학술연구분과 고은하 부회장님을 비롯한 윤인애부회장님, 이정래부회장님, 박형란부회장님, 황향희부회장님, 박주영부회장님, 김원정부회장님, 황정현 교수님을 비롯한 사무국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사)한국여성체육학회 회장 김 민 정

#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양성평등 문화를 학교체육 현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한 '2022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사)한국여성체육학회의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 문화예술, 관광 등의 분야에서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하나로 우리 사회, 특히 체육계에 여전히 만연한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입니다.



이번 행사에 앞서 학교체육 분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기반하여 지난 8월 대전·충남권부터 11월 서울권까지 총 7회에 걸쳐 권역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양성평등을 위해 힘쓰시는 현장의 전문가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체육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환경에서 마음껏 체육을 즐길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 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지역 등의 잣대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공정하게 문화를 누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저희 문체부는 성별 특성을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체육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 끝없는 도전이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찬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보 균



## 환영사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여성체육학회 회원 여러분, 여성 체육인과 연구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는 1954년도에 설립되어 올해 창립 68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개교한 이후 국내 최초의 글로벌 대학으로써 진리, 평화, 창조라는 건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잇고 다양성 공존이라는 이상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체육학회 또한 같은 해인 1954년도에 출범하여 명실상부 우리나라 여성체육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학회 중 최고의 학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여성체육학회는 학술 정보 교류뿐 아니라, 여성 체육인과 체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온 학회입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주제인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또한 체육학 분야에 만연해 있는 성차별이나 성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특히 다양한 차원의 덕을 학습할 수 있는 학교체육 현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불평등한 상황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이라는 이번 추계학술대회 주제는 양성평등 관련 현장의 소리와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불어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는 올바른 인성과 자유, 평등의 개념과 가치를 일깨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학술대회가 향후 우리나라 여성체육과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의견과 토론, 교류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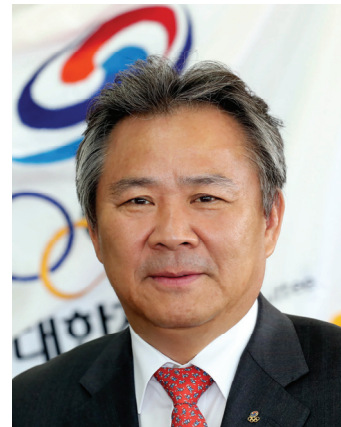
2022년 11월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총장 김 태 성

## 축사

존경하는 체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체육 분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사단법인 한국여성체육학회' 김민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포츠의 본질적 가치인 '공존'과 '다양성', 그리고 '연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가능한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제정된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포츠 관련 불공정 및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을 다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스포츠 현장에서의 공정성,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체육활동의 초기 단계인 '학교체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체육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성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체육 분야의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스포츠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스포츠로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가하신 여러분의 건승을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대한체육회장 이 기 흥

## 축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체육 분야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지속적인 문화 확산을 위한 이번 양성평등 문화 확산 종합포럼 및 2022년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한국여성체육학회 김민정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OC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성평등 구현에 기여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올림픽에서조차 지난 도쿄 올림픽에 이르러서야 여성의 참가율이 절반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차별 해소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는 세계 스포츠계의 오래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스포츠기본법이 시행된 우리나라 역시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아직 풀어야 할 수많은 난제가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스포츠계에 산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할 다양한 개선책과 제안이 도출되리라 기대합니다.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동등한 기회와 평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체육공단도 경청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행사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 현재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강연

함께 이루는 양성평등! 같이의 무한 가치!

김도균 회장(한국체육학회, 경희대학교)



## 같이해서 가치 있는 양성평등!

김도균 교수(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한국체육학회 회장)

### I. 들어가면서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146개국의 정치·경제·교육·건강 분야의 성별 격차를 종합한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 2022'를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의 지표인 '성 격차(Gender Gap) 지수' 국가별 순위에서 세계 146개국 중 하위권인 99위를 기록하였다.

세계 10위 경제 무역 대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의 성 평등 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념적으로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스포츠 분야에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나이키의 공동 창업자인 빌 바우어만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동선수다(If you have a body, you are an athlete)"라고 주장하면서, 창업 때부터 선수란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단정 짓지 않고 장애인, 어린, 여성 등 신체를 가진 모든 사람으로 그 범위를 넓혀 해석했다. 또한, 세상의 장벽을 허물고 평등과 포용을 지지하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으며 스포츠 세상을 지지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변화와 영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

스포츠는 나이키의 정신처럼 신체를 가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경쟁이라는 스포츠의 특성 때문에 남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평등함에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스포츠에서 양성 불평등이 있다면 경기 성과나 결과에 의욕을 저하 시키고, 스포츠 조직을 분열시키고, 이로 인해 생겨난 좌절과 같은 직접적인 심리학적 통로를 통해 선수들의 의욕 저하와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스포츠계에 불평등을 평등으로 변화시키고 선진화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 II. 양성평등과 스포츠

#### 1. 양성평등의 정의

생물학적 성은 태어나면서 신체에 나타나지만, 젠더는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성 정체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트랜스 젠더는 생물학적 성과 반대로 자신을 인식하는 사람,

바이 젠더는 남성인 동시에 여성이라고 인식하는 사람, 트라이 젠더는 남성과 여성, 제3의 성, 세 가지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젠더 플루이드는 젠더가 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 평등은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며 위키백과에서는 성 평등을 "두 성별(남성과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 소수자들에게도 뜻이 통한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의 개념과 구별된다."라고 기술하였다.

반면 양성평등의 사전적 정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화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사회적 성(性)을

의미하는 'Gender'와 평등을 의미하는 'Equality'가 합쳐진 단어로 사회적으로 남성, 여성 구별하지 말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뜻이다.

양성평등은 남녀평등에서 더 진일보한 개념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자는 물론 남자에게도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Woman, Man 성별만 다를 뿐 똑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 것이다.

## 2. 스포츠 양성평등이 필요한 이유

### 1) 스포츠 산업의 발달

근대 산업화 이후 사회(정치, 경제, 법과 제도를 포함한 공적 공간)와 정신(정서적, 도덕적, 육체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사적 공간)의 분할 구조 속에서 남성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전업주부의 성 역할 분담 체제를 고수하였다.

이에 따라 공적 영역의 남성은 이성, 냉철, 경쟁, 목표 지향적이고, 사적 영역의 여성은 감성, 다정, 배려, 관계 지향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정보화 혁명 이후 초연결의 디지털 세상에서 자유 경제 시스템, 개인 간의 무한 경제, 초 개인화,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의 변화로 성 역할 분담 체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역할 분담 보다는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절실한 세상이 되었다.

### 2) 성별이 아닌 능력이 중요한 세상

집안일은 엄마, 바깥일은 아빠라는 생각은 성 고정 관념이다. 역할에는 성별이 없다. 성 고정 관념을 깨고 일의 종류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중요시해야 한다...

남녀의 능력은 다르지 않다. 조금 다른 형태일 수는 있지만 얼마든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 즉 삶의 조력자이므로 각자의 능력을 존중하면서 협력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3) 다른 극이어도 자력은 같다.

자석의 N과 S가 서로 다른 극이지만 성질과 힘은 같다, 자전거 바퀴, 자동차 바퀴의 모양은 다르지만, 바퀴의 역할은 같아, 남성과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힘과 재능, 역할은 평등해야 한다. 성별은 달라도 서로의 역할이 평등해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4) 구성원으로서 봐야 한다.

여성이라서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할 때이다. 성별의 차이로만 여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성을 바라보는 것이 양성평등의 시작이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함께 여성의 스포츠 참여의 길도 열렸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이해한다면 여성과 남성은 모두 같은 존재이다.

### 5)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세상

양성평등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속에서의 평등 의식, 즉 다양성을 추구할 것을 지향한다. 성 역할의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여 나다움을 찾고 이런 다양한 자아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는 것이 건강한 세상이다.



### 3. 스포츠 역사 속의 양성평등

스포츠 양성평등은 스포츠 활동이나 경기에서 남녀의 지위나 권한, 그리고 서로 간 관계에서의 평등을 말하며, 경쟁이나 시합뿐만 아니라 선수나 팀 간의 관계에서 평등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올림픽 제창자인 쿠베르탱은 여성의 땀은 스포츠를 더럽힌다고 생각하여 여성의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스포츠 양성평등 정책은 남성과 여성 선수가 모두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도록 권리, 책임, 의무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미국 여성 참정권 운동의 기수였던 수잔 앤서니는 이미 120여 년 전, “자전거 타기가 다른 어떤 일보다 여성 해방에 크게 기여했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유엔과 IOC는 “스포츠가 성 평등을 증진시키고 성인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가장 강력한 플랫폼 중의 하나다”라고 하였다. 2000년 이후 발간된, 스포츠와 성 평등에 관한 각종 국제 문건은 성 평등 구현에 기여하는 스포츠의 강력한 힘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스포츠 분야가 여전히 성차별적이며 여성 참여가 저조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성이 올림픽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것은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부터다. 참가 여성 선수는 22명. 전체 선수 997명 중 2.2%에 불과했다.

올림픽 경기 종목 중에서는 여자마라톤이 1984년, 여자유도가 1988년, 여자축구가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유일하게 금녀의 원칙을 유지하던 복싱이 정식으로 여자 종목을 채택했고, 카타르·브루나이와 함께 또 다른 금녀의 원칙을 고수하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여자선수를 출전시키면서 26개 전 종목에 여자선수가 참여하면서 ‘완전한 양성평등’ 대회라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반대로 여성들만 하는 경기였던 싱크로나이즈, 리듬체조에 남자경기가 생겨났다. 남성의 전유물로 출발했던 올림픽이 남녀 모두의 제전이 되어 가고 있다.

올림픽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4. 스포츠 현장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

IOC를 비롯한 유엔, 국제기구, 서구 각국, 단체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들로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94년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렸던 제1회 세계 여성 스포츠회의에서 스포츠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참가를 요구하는 ‘브라이튼 선언’을 채택했다. 이에 힘입어 2년 후에는 IOC가 세계 여성 스포츠회의를 열고, 스포츠 조직 내 의사결정자의 20%를 여성으로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IOC가 만든 <IOC 성 평등 리포트> 보고서에서 “올림픽 참가선수의 남녀 비율을 동일하게 한다.” “경기 시간 라운드 횟수, 장비 등에 차별은 없는지 조사하여 최대한 성적으로 평등하게 운영한다.” “코치는 성별 균형을 대표해 선발하며, IOC 집행위원 등은 기존 30%를 넘어 남녀 동일 비율이 되도록 한다.” 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여자축구에 4년간 10억 달러(약 1조2000억 원) 투자를 약속하고,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진두지휘하는 올림픽 담당 장관을 1992년 알베르빌동계올림픽 여성 최초 메달리스트인 하시모토 세이코(1500m 스피드스케이팅)를 임명하였고, 올림픽출신 여성 체육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한다.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성차별 해소와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리더십 향상은 성 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적 의제로 자리 잡아 더욱 발전해 나가고 있다.

## 5. 스포츠 현장의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스포츠의 규칙은 모든 선수에게 동일 하지만 성별 간에는 넘어야 할 벽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 들이 IOC를 비롯하여 국가, 종목 단체, 브랜드 등에서 펼쳐 지고 있다.

### 1) 올림픽과 양성평등

고대 올림픽에서는 남성들만 출전할 수 있었고, 여성들은 참가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

고대 올림픽을 부활한 1896년 첫 근대올림픽인 아테네올림픽서도 여성들의 출전을 불허했다.

그러나 2회 대회인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테니스, 요트, 크로켓, 승마, 골프 등 5개 종목에 여성 22명이 참가했다. 2.2%에 해당하는 적은 숫자였지만 시작이 의미가 있었다. 이후에도 IOC는 여성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기회를 점차 확대해 나갔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은 전체 참가선수 10%,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은 20%,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은 34%, 2012 런던올림픽은 44%를 각각 기록한 데 이어 2020 도쿄올림픽서는 절반에 가까운 48%를 기록했다.

여자선수 쿼터와 메달 종목 증가와 함께 성의 다양성과 평등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남녀 혼합 종목도 신설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혼합 종목의 수가 두 배로 증가했으며,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은 4개 혼합 종목을 새로 추가했다.

이러한 IOC의 노력으로 올림픽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남녀가 평등한 행사로 성장을 했다.

IOC 홈페이지에는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올림픽 연대(Olympic Solida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올림픽 레거시(Olympic Legacy)', '인권 보호와 존중(Protection and Respect of Human Rights)'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치로 명시했다.

IOC는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 2) 타이틀 나인(Title IX)

미국에서 1972년 6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교육 평등법안 '타이틀 나인(Title IX)'은 여학생 체육에 획기적 변혁을 불러왔다.

'타이틀 나인'은 '미연방의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되거나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법안이다.

1978년 모든 중등교육 기관에서 '타이틀 나인' 준수가 의무화됐다. 남자팀이 있는 학교는 당연히 여자팀도 운영해야 하고, 대학이 남자선수 10명을 선발한다면 여자선수도 10명을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종목 선정, 장비 및 지원품, 경기 및 훈련시간 배정, 코칭 기회, 라커룸 시설 등 모든 항목에서 남녀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한했다.

'타이틀 나인' 제정 이후 미국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체육 활동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쏟아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타이틀 나인' 제정 이전 대학 여자운동선수의 비율은 15%, 고등학교 여자운동선수 비율은 7%에 불과했지만, 2006년 조사에 의하면 고교에서는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타이틀 IX 이전보다 9배, 대학은 450%가 증가했다. 2008년 조사에는 대학에 무려 9101개 여자팀이 늘었다. 학교별로 8.65개 팀이 증가했다. 종목별로 증가된 추세는 농구 98.8%, 배구 95.7%, 축구 92%, 크로스 컨트리 90.8%, 소프트볼 82.9% 순이다.

타이틀IX와 같은 제도 덕에 훌륭한 여성 지도자들도 탄생했다.

일반적인 교육 평등법이지만, 학교 체육 현장에 미친 효과는 즉각적이고도 지대했다.

### 3) 이퀄 저지(Equal Jersey) 캠페인

‘이퀄 저지(Equal Jersey)’ 캠페인은 세계 최고 역량의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이 적혔으나 반대 성별의 저지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면서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행사다.

이퀄 저지 캠페인은 모든 경기에서 남녀 대회가 동등한 기회와 상금을 받고 동등한 관람 비율을 보유함으로써 스포츠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의 경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결승에서 이름을 새긴 저지를 성별을 바꿔 입고 경기에 임한다. 스포츠계에 존재하는 남녀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배구에서 스포츠 종목과 선수, 팬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였다.

### 4) US 테니스 오픈 상금의 양성평등

세계 테니스 4대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US 테니스 오픈은 1973년부터 남녀 선수들의 상금 차별을 철폐, 남녀 선수들에게 같은 액수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US 테니스 오픈은 전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시 미국 내에서 여성의 임금수준이 남성의 60%가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다른 테니스대회들은 남녀 상금 차별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5) 걸스 플레이 2

주한미국대사관이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지지하는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학교 체육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둔 '걸스 플레이 2' 캠페인은 소녀들이 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포츠를 즐기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녀들도 농구나 하키, 스노보드, 스키를 타고 싶어한다. 어떤 소녀들은 올림피언을 꿈꾼다. 여학생들에게도 남학생들과 똑같이 운동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 캠페인은 스포츠 양성평등을 통한 여학생 체육 활성화 캠페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걸스 플레이 2'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 6) 나이키

나이키는 스포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전 세계 135개가 넘는 여성 단체와 협력해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각종 운동을 펼치고 있다.

‘Just Do It’, ‘You Can’t Stop Us’, ‘신체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동선수다(If You Have a Body, You’re an Athlete)’라는 슬로건처럼 여성을 섬세하게 배려하고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마케팅 정책과 활동을 통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평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19년에는 ‘우먼 인 나이키(Women in Nike, WIN)’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자체 앱을 통해

임산부를 비롯해 모든 체형을 위한 플러스 사이즈, 서양인의 몸에 맞춰진 실루엣에서 벗어나 아시아인을 위한 핏, 본인의 체형에 맞게 운동복을 고를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히고, 50여 종의 WNBA 컬렉션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나이키는 글로벌 전체에서 현재 이사급 이상의 여성 리더십 비율은 43%를 차지하고 있다.

2025년까지 50%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7) 국가별 스포츠 양성평등 프로그램

- 영국 스포츠협회는 2004년부터 스포츠 분야의 평등 증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또한 영국 여성 스포츠회는 280개 학교에서 5만여 명에 이르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스포츠 단체들을 대상으로 성 평등 및 차별금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와 연계해 공적 재정을 지원하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 핀란드는 정부의 양성평등 행동계획에 스포츠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포함 시키고 정례적으로 정부 보고서를 발간해 실태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 Ⅲ. 양성평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스포츠 분야 양성평등,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스포츠 분야의 성 불평등이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불리한 법안도 아직 많기 때문에 체육 관련 법령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은퇴 후 재취업할 기회가 없는 은퇴한 여성들을 추적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노는 언니, 골 때리는 그녀들처럼 여성 스포츠 예능의 등장과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대거 출현으로 성 고정 관념을 깨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글로벌 수준에 맞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1. 여성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학생들이 체육을 싫어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참여자'인 여학생 중심의 체육교육, 생애주기에 맞는 일관성 있는 체육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능력과 취향은 다르지만, 움직임은 본능이고 건강을 위한 방안이다. 성향에 따라 조용한 운동을 선호할 수도 있고,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여성들의 의견에 귀를 더 기울여야 한다. 여자들은 요가나 댄스를 해야 하는 정답은 없다. 좋은 체육 활동을 위해 무얼 하면 좋을지 계속 물어봐야 한다. 참여자 중심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

### 2. 의사결정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여성의 의사결정권도 확대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은 여성·남성의 권리가 동등하고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남성에게 비해 현저히 낮은 스포츠 분야 고위직과 위원회, 지도자직 등에서 여성 비율을 확대해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 참여의 비율은 정부의 양성평등 기본계획 목표치 수준으로 설정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3. 여성 스포츠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양성평등 기업의 다수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퇴사한 여성의 재입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리턴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유니클로는 'کم백제도', 코오롱 그룹은 대졸

신입사원의 30%를 여성으로 채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CJ 제일제당은 여자 대학교를 대상으로 캠퍼스 리쿠르팅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선수나 지도자 등 우수한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각종 제도 시행을 통해 여성의 지도력을 강화해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

#### 4.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혹은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 이라 한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가능하다. 성인지 감수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 불평등까지 지각·공감하고 비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수와 지도자간, 선수와 선수간, 교육 대상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대화·토론 등 참여식 방법과 워크숍 형태의 교육 방법을 활용하여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 5. 여성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성들을 조직화해야 한다.

양성평등 기업의 다수는 여성위원회와 같은 여성 참여 모임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여성 네트워크(K-Win)를 발족해 리더 양성, 조직 몰입도 향상, 사회-정부-기업-개인의 연결, 활동 홍보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멘토링, 여성 리더십 교육, 경력 유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외에도 르노삼성의 Woman@RSM, 에어비앤비의 우먼앳

(Woman@), 이케아의 우먼 오픈 네트워크 등 앞서가는 양성 평등 조직들은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멘토링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6. 남성도 수혜자가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 제도나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남성을 소외시키는 것이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느끼거나 관련 제도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양성 프로그램은 성공하기 어렵다. 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처럼 양성평등은 누구도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 7. 양성평등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선진 문화의 밑거름이다. 차별 없고(No), 평등하게(Yes), 나는 나답게 모두 양성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양성평등을 실천한다면 평등도 같이 실천 할수 있다.

## IV. 같이해서 가치 있는 양성평등

차별은 빼고 평등은 더하며 양성이 행복한 스포츠 현장을 구현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별과 부당함에서 공정한 기회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1. 평등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

스페인 의사인 그레고리오 마라논(Gregorio Maranon)은 “두 성별은 한쪽이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으며, 단순히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성별의 차이는 단지 육체적일 뿐이며 지적 차이, 또는 감정적 차이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하므로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같은 위치에서 평등한 사회로 흐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한다.

진정한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평등, 화합, 사랑, 존중, 어떤 방향이든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 되어 바라본다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차별과 편견을 없애야 한다.

선풍기는 여러개의 날이 빠르게 회전하면서 하나의 날개로 보인다.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누릴수 있도록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화합을 이루는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배움 앞에 남녀는 없다.

앞면과 뒷면으로 구분되는 종이도 생각을 전환하면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뫼비우스 고리가 되는 것처럼 차별과 편견을 버리면 무한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 3. 다함께가 추가된 올림픽 슬로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은 더(~er)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Faster(빠르게), Smarter(똑똑하게), Easier(편안하게), Smaller(작게), Bigger(크게), Cheaper(싸게)가 성공의 키워드였다. 그렇게 해야만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포지셔닝 할 수 있었다. IOC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2021년 138차 IOC 총회에서 올림픽 구호인 ‘더 빨리(Citius), 더 높이(Altius), 더 힘차게(Fortius)’에 ‘다 함께’를 추가하였다. 이로써 올림픽 구호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다 함께’로 변경 되었다.

더(~er)에서 다 함께(Together)로의 변화는 올림픽 창시 후 무려 127년 만에 변경이 된 것이다. 더가 인간의 기록 욕망을 표현한 것이라면 ‘다’는 협력, 함께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는 다 함께로 하나가 되고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위한 스포츠 경쟁의 현상이 되어야 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다 함께는 유대감을 조성하고 남녀가 평등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스포츠 유대감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온 인류가 소통하여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 함께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누리는 행복이다.

### 4. 배려 있는 행동은 가치를 만들어 낸다.

배려는 진심에서 우러나와 남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행동이며 품격이다. 양성평등이 한 단계 발전시키려면 남녀가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배려는 서로를 위한 가치(value)를 만들어 낸다. 같이 해야만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만 서로 발전 할수 있다.

## V. 나가면서

여성가족부가 5년마다 수립해 이행하는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에 스포츠 관련 정책 과제가 아예 없다는 사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이번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만들어 업무를 이관한다는 구상이다. 여성 고용 문제는 고용노동부와 업무가 겹치고, 아동·청소년 돌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으니 통폐합으로 업무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을 증진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 정부도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줄이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스포츠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행동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의 정례적인 성평 등 실태 파악과 성 평등 교육 확대 또한 필수다. 이 같은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 없이 체육계가 오래전부터 표방해온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정부의 지원, 노력과 함께 고정 관념과 편견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해 진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발 제

## ①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황향희 교수(강원대학교)



##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황향희 교수(강원대학교 스포츠과학과)

### 1. 들어가며

2022년 5월 기준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는 748만 2천명으로 총인구의 14.5%이고, 총인구 중 학령인구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60년에는 총인구의 9.8%로 전망한다(정책브리핑, 2022년 5월 25일자).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현상은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남녀공학전환'을 요구하는 현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남녀공학 및 혼성학급의 전환으로 학교현장에 변화가 있는 가운데, 현재 성 평등한 학교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나은 성 평등한 학교체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6년 세계 146개국 청소년(11~17세)의 신체활동량을 조사한 결과, 146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운동부족으로 분류된 학생 비율은 94.2%로 최하위이며, 운동이 부족한 여학생의 비율은 무려 97.2%로 사실상 전원이 운동부족이라는 문제를 들어내기도 했다(하채림, 2019년 11월 22일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연구보고서에서도 청소년 33.1%가 '학교체육수업 이외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로 응답(백혜정, 임희진, 송미경, 김양희, 2020)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의 운동부족은 물론 특히 여학생들의 부진한 체육활동 참여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더해 전자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는 스마트폰 의존율을 급격히 높이는 원인제공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배경은 체육활동 참여에 남녀격차가 있게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청소년 모두가 성 평등한 학교체육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학교체육은 2006년 남녀 혼성학급 수업에서 여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정도의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보장'에서 출발하여,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에서 여학생의 체육활동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 이후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학교체육진흥법 제13조 2의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또한 우리나라 성 평등 학교체육의 큰 영향을 미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 학교체육에서 여학생들은 생물학적 능력이 부족한 생물학적 성(SEX)의 관점만 강조되어온 교육 정책적 한계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학교체육 정책에서 양성평등, 성 평등을 이야기하면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여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왔다. 예로, 체육활동이 전통적으로 남성중심의 활동이라는 특수성, 여학생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환경의 미비, 여성이라는 신체적 조건의 영향 등의 이유로 남학생, 여학생을 구별 짓기하고 소외된 대상인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이었다.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남녀공학, 혼성학급이라는 변화의 시점에서 성 평등한 학교체육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지역과 학교 규모, 학교의 위치 등 복합적인 상황에 따라 학교들의 사정이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예로, 학교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학교규모와 학급수가 다르고, 남녀공학인지 단성학급, 혼성학급인지에 따라서도 그 사정들이 다를 것이다.

본 발제는 지난 10월 강원권역에서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주제로 열린 학교체육 현장사례를 전하고자 한다. 포럼은 강원도에 맞는 성 평등한 학교체육 만들기 실현을 위한 토론과 정보교류의 장이었다.

## 2. 강원도 남녀공학 및 학교체육 성비 현황

### (1) 전국 시·도별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

<표 1>에서 전국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약 2.9%의 소폭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강원도의 경우 2011년 66.3%였으나 2020년 85.9%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표 1. 전국 시도교육청별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2011~2020)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교*
총계	75.2	75.4	75.8	76.3	76.5	76.7	76.9	77.1	77.8	78.1	2.9
서울	75.3	75.5	75.9	76.0	76.0	76.0	76.0	76.1	76.2	76.2	0.9
부산	57.3	57.6	58.2	58.5	58.7	58.7	59.2	59.2	59.3	59.4	2.1
대구	82.1	82.1	82.1	82.3	82.3	84.0	84.0	84.8	84.8	84.7	2.6
인천	56.5	57.1	57.1	57.9	58.2	58.2	58.2	58.2	58.5	58.8	2.3
광주	81.4	81.4	81.6	81.8	82.0	83.3	83.3	83.3	83.3	83.5	2.1
대전	74.7	76.1	76.1	77.3	77.3	77.3	77.3	77.3	77.3	77.3	2.6
울산	83.6	83.6	83.6	85.5	85.5	87.3	87.3	87.3	87.3	87.5	3.9
세종			80.0	84.6	88.2	88.9	90.9	91.3	91.7	91.7	11.7
경기	88.6	88.9	89.6	89.7	89.9	90.0	90.9	91.4	91.4	91.7	3.1
<b>강원</b>	<b>66.3</b>	<b>66.3</b>	<b>67.5</b>	<b>69.8</b>	<b>69.8</b>	<b>72.2</b>	<b>72.6</b>	<b>72.4</b>	<b>84.0</b>	<b>85.9</b>	<b>19.6</b>
충북	74.8	74.6	74.0	75.0	75.8	75.0	74.0	73.2	73.0	73.2	-1.6
충남	71.9	72.5	72.7	73.7	73.7	73.7	73.8	73.8	74.2	73.9	2.0
전북	81.3	81.3	81.3	81.3	81.3	81.3	81.3	81.3	81.3	82.4	1.1
전남	78.5	78.5	78.5	78.7	79.2	79.2	79.1	79.8	79.8	80.3	1.9
경북	67.4	68.1	67.9	68.7	68.7	68.3	67.2	66.8	67.6	67.2	-0.2
경남	68.8	68.4	68.5	68.5	68.4	68.3	69.1	68.9	68.8	68.9	0.2
제주	67.4	67.4	68.2	68.2	68.9	68.9	68.9	68.9	68.9	68.9	1.4

\*2011년~2020년의 증감 산출. 단, 세종시의 경우 2013년~2020년의 증감 산출

출처 : 송충진, 원세림, 신강숙(2021). 강원도 남녀공학 전환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원교육 정책연구 2021-43, 강원도교육연구원.

### (2) 강원도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2012~2022)

<표 2>에 따르면 강원도의 중학교는 총 163개로 남녀공학이 143개(87.8%)를 차지하고, 올해 원주 진광중(남학교)이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했고, 남학교 10개(6.1%), 여학교 10개(6.1%)로 남녀공학 비율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2. 강원도교육청 중학교 남녀공학 현황(2012~2022)

연도	전체	남	여	공학	비고
2012학년도	163	29 (17.8)	26 (16.0)	108 (66.2)	
2013학년도	163	27 (16.6)	26 (16.0)	110 (67.4)	■ 남중 2교(소양중, 강원중) 남녀공학 전환
2014학년도	162	26 (16.0)	23 (14.2)	113 (69.8)	■ 함백여중 폐교(여중 △1교) ■ 남중 1교(함백중) 남녀공학 전환 ■ 여중 2교(봉의여중, 우석여중) 남녀공학 전환
2015학년도	162	26 (16.0)	23 (14.2)	113 (69.8)	
2016학년도	162	24 (14.8)	21 (13.0)	117 (72.2)	■ 남중 2교(경보중, 강릉중) 남녀공학 전환 ■ 여중 2교(경보여중, 강릉여중) 남녀공학 전환
2017학년도	164	24 (14.6)	21 (12.8)	119 (72.6)	■ 비들중, 가정중 신설(공학 2교)
2018학년도	163	24 (14.7)	21 (12.9)	118 (72.4)	■ 소달중 폐교(공학 1교)
2019학년도	162	14 (8.6)	12 (7.4)	136 (84.0)	■ 양양중 폐교(남중 △1교) ■ 남중 9교, 여중 9교 남녀공학 전환 ■ 성강중 신설(공학 1교)
2020학년도	163	12 (7.4)	11 (6.7)	140 (85.9)	■ 남중 2교(삼척중, 삼일중) 남녀공학 전환 ■ 여중 1교(삼척여중) 남녀공학 전환
2021학년도	163	11 (6.7)	10 (6.1)	142 (87.2)	■ 장성여중 폐교(여중 △1교) ■ 남중 1교(태백중) 남녀공학 전환
2022학년도	163	10 (6.1)	10 (6.1)	143 (87.8)	■ 남중 1교(진광중) 남녀공학 전환 예정

출처 : 송충진, 원세림, 신강숙(2021). 강원도 남녀공학 전환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원교육 정책연구 2021-43, 강원도교육연구원.

### (3) 학교체육 성비 현황

<표 3>에 따르면 강원소재 고등학교 전체 운동부는 116개교 중 여학교는 26개교로 전체 22.4%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2022년도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초중고 전체 참가학생 수는 4,310명이고 남학생은 2,589명(60.1%), 여학생은 1,721명(39.9%)이 참가하여 남녀학생 수의 체육활동 참여비율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전국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부문 참가현황에서도 초등부 25개교, 중등부 30개교, 고등부 4개교 총 59개 약 500여명의 참가학생 중 남학생은 단 1명으로 성비 불균형을 엿볼 수 있었다.

표 3. 강원소재 고등학교 운동부 현황

2021년 12월 31일 기준.

» 강원 소재 고등학교 현황			116개교			국공립 94개			사립 22개			특성고교 70개교			국공립 59개교			사립 12개교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지역	학교명	종목	
춘천	강원사대부고	근대5종	원주	원주여고	역도	삼척	도계전상정보고	소프트테니스													
	춘천여고	농구		대성고	유도		삼척고	태권도													
	강원고	레슬링		영서고	유도		삼척고	핸드볼													
	강원체고	레슬링		원주공고	축구		삼척여고	핸드볼													
	유봉여고	배드민턴		진광고	태권도		원주고	카누													
	봉의고	불싱		원주여고	테니스	춘천	춘천고	복싱													
	강원체고	빙상	강릉	원주고	펜싱		춘천고	역도													
	유봉여고	빙상		강릉중고	레슬링	형성	형성고	펜싱													
	강원사대부고	사격		경포고	롤러		형성고	불싱													
	춘천기계공고	수영		강릉여고	배구		형성고	소프트테니스													
	강원고	야구		강릉중고	복싱		분내고	스키													
	강원체고	양궁		강릉정보고	복싱	영월	주천고	축구													
	강원체고	역도		강릉고	스키	영월	영랑고	레슬링													
	소양고	유도		강릉중앙고	스키		상지대관령고	루지													
	강원체고	육상		강릉고	야구		상지대관령고	펜슬레노스레톤													
	소양고	육상		강릉문성고	요트		대화고	바이애슬론													
	강원체고	자전거		주부진고	유도		봉평고	배드민턴													
	소양고	조정		강릉여고	육상		진부고	역도													
	강원체고	체조		강릉영릉고	육상		봉평고	스키													
	춘천고	축구		강릉제일고	축구		진부고	스키													
	강원체고	카누		강릉문성고	축구		상지대관령고	스키													
	춘천기계공고	합격		강릉중앙고	축구	정선	정선고	사격													
	상수고	탁구	동해	강릉정보고	테니스		고한고	스키													
	강원체고	탁구		동해광덕고	배구		신원고	유도													
	강원사대부고	태권도		북평여고	양궁		합천고	유도													
	춘천여고	펜싱	태백	합치고	바이애슬론		합천고	육상													
	치악고	검도		합창고	바이애슬론		합천고	태권도													
원주	영서고	롤러		합창고	역도	화천	화천고	조정													
	진광고	배드민턴		태백기계공고	핸드볼		화천정보산업고	축구													
	치악고	배드민턴	속초	합지정보산업고	핸드볼	양구	양구고	테니스													
	대성고	사격		속초고	배구	인제	원릉고	검도													
	치악고	사격		속초고	복싱		신남고	복싱													
	북평여고	사격		실악고	야구	고성	고성고	사격													
	원주고	야구		속초여고	육상		거진정보공업고	사격													
	원주여고	양궁		실악고	육상	양양	동광산업과학고	태권도													
	원주고	역도		속초여고	카누		양양고	자전거													
				실악고	태권도																

출처: 강원도체육회 홈페이지 자료

### 3. 성 평등 학교체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체육교사 12인 모두 지금까지 학교체육에서의 성 평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고, 포럼을 계기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12명의 체육교사로부터 3가지 정도의 공통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혼성학급에서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

체육수업에서 모두의 참여를 유도하다보니 역동적이고 활동성이 많은 남학생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수업이 이루어졌다는 반성을 하였다. 왜냐하면 남학생이 “왜 여학생에게만 편의를 봐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체육교사들은 모두의 참여를 위해 전통적 스포츠는 변형게임(미니축구)화하고 뉴스포츠 종목을 많이 하고 있었다.

둘째, 차별적 성 역할 사회화 고착으로 인한 학교체육에서의 성비 불균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체육수업 참여도에서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 참여도를 이끌기 어렵다고 한다. 특히 사춘기로 이성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에서 혼성학급의 체육수업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향원스포츠클럽과 하는 학교운동부 현황에서 춘천중학교는 농구, 야구, 체조 종목을 육성하는데 남학생 종목, 후평중학교는 남자 축구부, 강원사대부고 남자 사격부, 농구부, 강원체육고등학교는 학생수 200명 중 남학생이 130명, 여학생이 70명이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여자 축구부, 우석중학교는 육상, 수영 종목 모두 남녀혼성 으로 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내용에서는 남성체육지도자에 비해 여성체육지도자가 운동지도와 일상생활 상담 등 여러 방면에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학교체육 현장에는 의식 있는 체육교사가 많이 있었다.

체육교사들은 성 평등한 학교체육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으나 현장사례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성 평등한 학교체육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예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별 역할부여(각 반별로 준비운동 만드는 친구, 준비운동을 가르치는 친구, 음악을 틀어주는 친구 등등)를 하고, 성별에 따른 생리학적 기능 차이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수준별 남녀 조합 수행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 4. 마치며

양성평등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이 성(性)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에 따라 떠올리는 옷 색깔이 다르다. 성차별은 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배분되는 일련의 부정적인 특성에 기인하는데 성차별의 근원은 다음과 같다(이혁기, 신석민, 2018).

첫째, 문화적 전통이다. 여성은 본질적으로 비공격적이며, 수동적인 반면, 남성은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성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로 과격한 신체활동이나 스포츠로의 참여는 남성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차별적 성 역할 사회화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회화시킨다. 예로 남자아이에게 로봇, 자동차, 공을 여자아이에게는 인형, 소꿉놀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의 전통적 성 역할 강화이다. 남학생에게는 축구, 농구, 풋살 등 공격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여학생에게는 리듬운동, 무용과 같은 미적인 종목을 주로 학습시킨다.

성 평등한 학교체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잠재되어 있는 성차별 근원의 변화노력과 함께 학교현장에서는 체육교사들의 관심과 인식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원도체육회 홈페이지. 2022년 10월 1일, 웹주소 : <https://www.gwsports.or.kr/> .
- 백혜정, 임희진, 송미경, 김양희(2020).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충진, 원세림, 신강숙(2021). 강원도 남녀공학 전환 정책의 현황과 과제. 강원교육 정책연구 2021-43, 강원도 교육연구원.
- 이혁기, 신석민(2018). 개념 중심 스포츠사회학, 레인보우 북스.
- 정책브리핑(2022년 5월 25일자). 2022 청소년 통계, 여성가족부.
- 하채림(2019년 11월 22일자). 한국 청소년 운동부족 세계 최악...여학생은 146국 중 '꼴찌', 연합뉴스,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웹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59700009?input=1195m>.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발 제

## ② 국제스포츠와 성평등(Gender Equality)

박주희 사무총장(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 국제스포츠와 성평등(Gender Equality)

박주희 사무총장(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Olympic Council of Asia)는 제1회 OCA 성평등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다. 국제스포츠의 중심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도 성평등을 올림픽 무브먼트(Olympic Movement)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며, 두 가지 주요 목표는 올림픽대회와 스포츠 행정 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 수를 늘리는 것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여러 분야에서 이를 위한 다양한 움직임과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sup>1)</sup>으로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 1. 올림픽과 여성의 참여

올림픽 헌장 제2조 8항에는 ‘남녀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계층 및 모든 구조에서 여성 스포츠의 증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라고 IOC의 사명과 역할로서 성평등 활동이 명시되어 있다.<sup>2)</sup> 이는 올림픽이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남성 중심의 전유물이라는 과거의 인식을 탈피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성평등을 이뤄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만 해도 올림픽은 남성 중심으로 전유물로 여성이 올림픽에 나설 자리는 없었다. 고대 올림픽에서는 여성에게 경기관람 기회조차 없었으며, 근대올림픽이 실시된 이후에도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또한, 근대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은 ‘여성의 역할은 우승자에게 월계관을 걸어주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초로 여성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은 1900년 제2회 파리올림픽이다. 전체 선수 997명 중 여성 선수가 22명이었으며, 테니스 및 골프 종목만 참가할 수 있었다. 이후 개최된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에서는 여성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은 양궁뿐이었으며 참가선수는 고작 6명에 불과했다.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는 36명의 여성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참가종목은 피겨 스케이팅과 테니스 종목이었다. 런던올림픽 이후 영국올림픽위원회는 수영과 다이빙, 체조 종목에 여성 참가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1912년 스톡홀름 올림픽조직위원회는 2개의 수영 종목과 1개의 다이빙 종목에 여성 참가를 허용했다.<sup>3)4)</sup>

1)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2) IOC 올림픽 헌장(2021)

3)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4) IOC (2021), Factsheet - The Games of the Olympiad

## 2. 올림픽과 여성 참여의 확대

지속적인 노력으로 1991년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올림픽 헌장에 추가되고, 새롭게 올림픽에 신설되는 종목은 남녀 부문 모두 존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올림픽의 장벽은 높았고 개방은 느리게 이뤄졌다. 이처럼 여성의 올림픽 참가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여성 선수 증가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sup>5)</sup>

특히, 2012년 런던올림픽은 성평등에 있어 역사적인 올림픽이다. 그동안 여성 선수들을 참가시키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브루나이 3개의 중동 국가들이 처음으로 여성 선수를 파견하여 올림픽 사상 최초로 모든 참가국에서 여성 선수가 참가한 올림픽이 되었다. 또 여자복싱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승인되면서 최초로 모든 종목에 여성이 출전한 올림픽이 되었다.<sup>6)</sup>

이후 스포츠계의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은 IOC가 2014년 12월에 채택한 ‘올림픽 아젠다 2020’을 통해 알 수 있다. IOC는 ‘올림픽대회의 여성 참여율 50% 달성을 위해 국제경기연맹들과 협력하고 더 많은 여성의 올림픽대회 참여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한다.’라고 명시하였다.<sup>7)</sup>

IOC는 최근 25년간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의 여성 참여를 독려해 왔으며 이는 1928 암스테르담 9.6%, 1976 몬트리올 20.7%, 1996 애틀랜타 34%, 2012 런던 44.2%,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에는 48.7%와 같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여성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비율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막을 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약 45%의 여성 선수가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성별 균형이 잡힌 동계 올림픽’이라고 IOC가 밝힌 바 있다.<sup>8)</sup>

## 3. 국제스포츠의 여성 리더십

올림픽에서 여성과 남성 선수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눈여겨볼 점은 국제스포츠계의 여성 리더십, 즉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도이다.

올림픽에서 여성 참여 역사가 100년을 넘었지만 1981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여성 IOC 위원 2명(Flor Isava Fonseca, 베네수엘라; Pirjo Häggman, 핀란드)이 선출되었다. 이후 1990년 최초의 여성 IOC 집행위원(Flor Isava Fonseca, 베네수엘라)이 선출되었으며, 1997년 여성 IOC 부위원장(Anita De Frantz, 미국)이 선출되었다.<sup>9)</sup>

스포츠계에서 여성리더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IOC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제경기연맹을 포함한 올림픽 무브먼트에 참여하는 단체에 2020년까지 주요의사 결정직의 여성임원 비율을 30%까지 늘리도록 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지난 9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IOC 분과위원회의 여성과 남성 위원 수를 동일하게 임명하였다. 31개의 분과위원회 중 13개의 위원회에서 여성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전체의 42%), 올림픽 아젠다 2020 이전인 2013년 분과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20%, 여성위원장 비율 18%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또한, 여성 IOC 위원 수는 2013년 21%에서 2022년 29%로 증가했다.<sup>10)</sup>

5)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6)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7) IOC (2014), Olympic Agenda 2020

8) Beijing 2022 sets new records for gender equality, IOC, 2022.02.14.

9) IOC (2021), Factsheet - 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이처럼 IOC는 지속적인 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해 '교육'을 강조하며,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제경기연맹에서 보다 많은 여성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하도록 IOC가 제공하는 멘토링과 네트워킹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4. 국제스포츠계의 노력

이러한 노력의 핵심에는 IOC 여성스포츠위원회(IOC Women in Sport Commission)가 있다. IOC 여성스포츠위원회는 Lydia Nsekera(브룬디)를 필두로 HRH Prince Feisal Al Hussein(요르단) 부위원장을 포함한 남녀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림픽과 스포츠에서 여성 참여 장려와 여성이 의사 결정 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및 성평등 인식 제고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IOC 위원장과 IOC 집행위원회에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IOC 여성스포츠위원회는 1995년 설치된 이래 국제스포츠에서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올림픽에 여성 선수의 지속적 참가 증가는 물론 국제스포츠에서 성평등에 관한 인식을 크게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로, 2015년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UN에서 선정하는 He for She 대사(He for She Ambassador)로 임명되었다.<sup>11)</sup>

올림픽 아젠다 2020은 여성 선수에 대한 교육 지원은 물론 UN 및 UN 산하단체, 기타 유관 단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하여 최근 올림픽에서 여성 참가 증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IOC 여성스포츠상(Women and Sport Award)<sup>12)</sup>은 국제여성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협력을 위하여 이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UN여성기구(UN Women)와의 협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sup>13)</sup>

또한, 가장 최근의 주목할 만한 것은 '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IOC 여성분과위원회와 선수분과위원회의 공동 기획으로 이루어져 2017년 3월 정식 출범하였으며, IOC 위원과 각 대륙의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의 대표들로 구성된 11명의 워킹그룹이 주도로 2018년 5가지 영역에 25개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IOC는 이를 통해 올림픽은 남성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과거를 탈피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스포츠를 통한 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다.<sup>14)</sup>

이후 IOC는 새로운 개혁안 '올림픽 아젠다 2020+5'를 2021년 3월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IOC의 디지털화, e스포츠 수용, 선수들의 권리 및 책임 강화, 깨끗한 스포츠 활성화, 올림픽의 지속성 및 고유성 강화 등 15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이 15개의 권고안에는 성평등에 관련한 권고사항을 포함시켜 올림픽 운동 전반에 걸친 다양성과 평등 및 포용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sup>15)</sup> 이러한 노력과 관련하여 IOC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을 발행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18년에 발표된 'IOC Gender Equality Review Project'의 이행을 검토하고, 올림픽 아젠다 2020+5에 맞춰 IOC의 3가지 책임 영역과 5가지 중점 영역에 걸친 2021~2024년의 새로운 21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sup>16)</sup>

10) IOC President: Gender equality is a must-have for every organisation and country, IOC, 2022.11.01.  
 11) UN Women name IOC President as "HeForShe", IOC, 2015.04.20.  
 12) IOC Women and Sport Awards, <https://olympics.com/ioc/gender-equality/advocacy-and-support/ioc-women-and-sport-awards>  
 13) IOC Partnership, <https://olympics.com/ioc/gender-equality/advocacy-and-support/partnerships>  
 14) IOC (2018), IOC Gender Equality Report  
 15) IOC (2021), Olympic Agenda 2020+5

## 5. 아시아 스포츠계의 변화와 노력

아시아 스포츠계도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아시아 스포츠를 총괄하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제1회 성평등 세미나를 바레인에서 개최하였다. 이틀간 진행된 세미나에는 IOC, 유엔(UN), 유네스코(UNESCO), 적십자사 및 기타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였으며 OCA 성평등위원회 위원장 Sheikha Hayat bint Abdulaziz Al Khalifa는 아시아 NOC가 이행해야 할 권고사항 목록을 발표하였다. 권고사항에는 여성 대표 및 참여, 성평등 강화를 위한 행동 방식, 기초전략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아시아 스포츠의 성평등 강화와 지원을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아시아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와 권한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성평등과 대한민국 스포츠의 방향

여성스포츠의 발전 단계를 두고 Brackenridge(1995)는 여성이 스포츠에서 배제(exclusion)되었던 시기에서 벗어나 동참(inclusion)하고 공평한 지위를 부여받으며(equality) 나아가 남녀 성별을 넘어 함께 진정한 스포츠의 발전을 이루는 것(transformation)으로 정의하였다.<sup>17)</sup>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현재 IOC가 추진하는 올림픽 무브먼트를 중심으로 살펴본 국제여성스포츠의 현황은 공평한 지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노력이 상당히 진전되어 그 성과를 보고 있는 국면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올림픽에 여성 참여 비율 50%를 달성하고, IOC 위원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로서 여성의 활약 증대 등 스포츠에서 성평등 구현을 여성스포츠 발전의 각종 노력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IOC 차원에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국가 수준(국가올림픽위원회)이나 종목 수준(국제경기연맹)에서는 아직 그 목표에 크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올림픽에서 참여율과 메달 획득으로 대변되는 여성스포츠 경기력의 성과에 비하여 여성의 의사결정권은 아직도 부족하다. IOC가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요구되는 의사 결정직에서 여성 비율인 30%를 넘어 스포츠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 평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여성스포츠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심도 있게 전개해야 한다.

또한,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별을 스포츠에 포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인권위원회 및 주요 프로젝트들과 제휴하고 있고, 성차별금지법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스포츠 단체들이 성 평등에 포괄적인 환경을 조성 및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성 평등이란 단순히 남녀의 개념을 떠나 모든 성에 대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 자신의 능력에 따라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스포츠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이 국제스포츠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날을 기대해 본다.

16) IOC (2022), Gender equality & inclusion report 2021

17) Brackenridge, C. (1995). Think global, act global: The future of international women's sports organizations. International Council for Health,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Sport and Dance Journal, 31(4), 7-11.

# 발 제

## ③ 한국형 타이틀 나인, 정말 필요한가?

김현수 前 단장(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 한국형 Title-IX, 정말 필요한가?

김현수(이학박사) (前)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 1. 서론

“어떠한 교육활동이나 연방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활동들에 있어서 미국에 있는 사람 누구도 성별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받거나, 혜택이 거절될 수 없으며, 또는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 사회의 스포츠/체육 현장에서 성평등 문제를 논할 때마다 회자되는 것이 미국의 교육평등법 「Title-IX」이다(김창금, 2010. 8. 24.; 박두제, 원영신, 이재희, 2013; 김성진, 2014; 이정규, 2015; 전영지, 2015. 6. 3.; 서재철, 김방출, 2020; 한건수, 2020). 1972년 6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의 학교 내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연방정부의 재정적 도움을 받는 교육적 노력이 일어나는 모든 곳들, 예를 들어 운동경기, 학교체육수업, 스포츠클럽, 레크리에이션, 교내대항경기는 모두 Title-IX 법의 요구사항을 충족(조미혜 등 역, 2015: 3).”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1978년, 이 법안이 의무화되면서 2010~2011년 여고생 기준 여학생 스포츠 참여율 1.079% 성장이라는 성과로 나타났다(전영지, 2015. 6. 3.).

한편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146개국 11-17세 남녀 학생의 신체활동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운동 부족으로 분류된 여학생이 97.2%로 조사대상 나라 중 최악의 결과를 나타냈다. 유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부진은 평생스포츠로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다(하채림, 2019. 11. 22.).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운동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시민의 권리로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평등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교육현장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회도 축구, 씨름, 농구, 배구 등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제작·편성되고, 국제무대에서 여성 선수들의 선전으로 뚜렷한 팬덤이 형성되고, 여자 골프, 테니스 등의 대중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여성 스포츠 저변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무려 45년 전 미국에서의 극적인 변화와 같이 교육현장에서의 차별 철폐로 인한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 마주한 바 없고, 여성 스포츠의 지위 또한 그 성과에 비해 평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는 「Title-IX」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조치들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입법 조치가 과연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인가를 진단하고, 학교체육 현장에서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여성의 지위 제고와 역할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2019년 대한체육회 등록선수 130,344명 중 여성은 29,999명(23.0%)이며, 전문체육 지도자 20,817명 중 여성은 3,760명(18.1%)으로 현저하게 적다.

## 2. 여성의 지위가 머무르고 있는 곳

### (1)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

성평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주요 기준들은 관련 법령과 그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들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성평등을 포괄하는 평등권 또는 사회권 등을 구체화하는 기준들이 대부분 상대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들이기 때문에 관련 합의들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국제연합(UN) 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특히 이 둘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협약들<sup>2)</sup> 가운데 성평등 관련 내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이들 협약에 가입하여 국내에서도 법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각 협약들은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지만 CEDAW는 이를 대부분 포괄하고,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의 권리를 가능해 볼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은 첫째, 인권 차원에서 인간(여성)의 존엄성 확인, 둘째, 평등권 원칙 제시, 여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확인, 셋째, 평등권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조치, 넷째,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법령 및 제도 마련, 다섯째, 성평등 관련 선언 및 권고에 대한 수용, 여섯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규정, 일곱째, 가사분담과 출산 등 전통적 성역할 변화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여덟째, 기타 선언과 법령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행과 합의 확인 등이다.

### (2) 한국 정부의 성평등 정책

#### 1) 관련 법령

성평등<sup>3)</sup>의 내용을 다루는 관련 법령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헌법」제10조<sup>4)</sup>와 제11조 제1항<sup>5)</sup>을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것을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일 것이다. 이를 주축으로 하여 성별에 의해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관련 법령<sup>6)</sup>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는 각종 개별 법령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와 성평등에 이르는 시책을 규정한 법령도 다수 존재한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 「스포츠기본법」,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도 성평등이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들 안에서도 이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이 서로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요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EDAW),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RC) 등이 대표적이다.

3) 양성평등은 두 가지 성에 국한하는 용어이므로 성평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권장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교 체육현장의 성평등 정책은 여성, 소녀, 논 바이너리, LGBTQI+ 등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5)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업인육성법」,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2)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국가의 인권 수준을 가늠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중장기 인권정책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그 실천 의지를 촉구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Plans of Ac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이하 인권 NAP)은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인권 관련 법·제도·관행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라 각국은 인권NAP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2003년부터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권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은 현재 「인권정책기본법」으로 법제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제4차 NAP 권고에서 성평등을 위한 지속적 제도 보안을 주문하면서 남녀소득 격차를 공공기관에서부터라도 해소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할 것,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2차 피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 또는 가정 폭력,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 예방 및 피해구제 정책 필요, 그리고 헌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 보장 필요 등을 지적하였고, 100대 핵심과제 안에도 8~10개 수준의 성평등 과제(를 포함시켜 그 관심과 의지를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재생산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수립 등도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 3. 스포츠와 성평등

### (1)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위한 국제적 기준들

#### 1) 올림픽 현장

국제 스포츠계에서 ‘올림픽현장’은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건으로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NOC로서 IOC의 회원국이고, 각 종목 단체들 또한 IOC와 협력 관계를 이루면서 세계 스포츠계의 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IOC는 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의 수준을 넘어 다양한 성들을 가진 모든 인류가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성적 지향성까지도 현장에 담아 성평등한 올림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IOC의 성평등 기조는 올림픽 현장을 소개하는 ‘참고’ 부분에서부터 그 의도가 잘 드러나는데, “올림픽현장에서 실제 인물 지칭 시 사용된 남성형 표현은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여성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올림픽 이념의 기본원칙 제4항과 제6항, 제2조 IOC의 사명과 역할 제7항,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 제2.5항, 그리고 제16조 위원의 1.3항에 나타난 위원들의 선서에서도 구체적인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칙과 성평등 보장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올림픽 현장뿐만 아니라 IOC는 실무적인 부분에서도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올림픽에 포함될 정식종목의 선정과정에서도 성평등 관련 지표들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 8개 분야 39개의 기준, 74개 항목 구성된 ‘종목 및 세부종목의 평가기준’ 목록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비공개 보고서 형식을 통해 IOC

7) 관련 핵심과제는 재난, 참사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을 위한 법·제도개선, 온라인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대응, 성소수자,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 해소, 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공적 및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대표성 강화, 친밀한 관계에서의 젠더 폭력 방지, 사이버 성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상병제도 도입 및 운영 등이다.

집행위원들에 의해서 검토되고, 이는 이후에 치러지는 표결에 반영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지표 39개 중 14개의 항목이 직, 간접적으로 성평등과 관련된 지표이다. 직접적으로 집행위원회 내의 여성의 수와 남성의 수(또는 동급) 비교, 최근 두 번의 올림픽 경기에서 예선 경기에 남성 Vs. 여성이 참가한 국가연맹의 비교, 여성스포츠위원회 내에 경기단체 종목이나 특정 여성종목에 대한 모든 계획의 존재 여부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올림픽에서부터 주니어대회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회에서 성별에 따른 개최원년, 개최횟수, 국가연맹의 수, 메달수, 입상 대륙 분포, 티켓 판매 등 관련 지표가 11종에 이른다. 최근 개최된 도쿄올림픽에서도 출전선수 남녀 비율이 51:49로 거의 동수를 이루었고, 많은 종목들이 남녀의 메달 개수를 동일하게 조정하거나 남녀 혼성 경기의 증가, 그리고 성전환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 허용 등 성평등을 위한 실천의 범위를 넓혀가는 행보는 우연이 아니다(안혜민, 2021. 8. 6.).

## 2)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CEDAW)

올림픽현장이 스포츠계에서의 성평등 기준을 보여준다면 교육분야에서는 「CEDAW」는 제10조를 통해 포괄적인 성평등의 기준을 보여준다. 「Title-IX」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각 조항에 담긴 내용은 미국 사회에서 「Title-IX」으로 인한 실질적인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 등을 언급하고, 특히 남녀가 스포츠와 체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일한’ 권리를 적시하여, 상황에 따른 불평등한 해석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CEDAW」는 교육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제11조 1.에서 고용 분야에서의 평등권, 그리고 제 13조에서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 영역에서의 평등권을 언급하면서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동일하게 확보할 것도 말하고 있다

## 3) 기타

스포츠와 교육 분야에서 성평등과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유니세프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스포츠 원칙에서도 다루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더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여성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6조에서 “당사국은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다중적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과 장애소녀가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여 성별에 따른 불평등 철폐에서 소외되어서는 안될 부분임을 천명하고 있다.

## (2) 국내 스포츠계의 성평등 정책

### 1) 법령

「교육기본법」에서는 「Title-IX」과 같이 학습자의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도 밝히고 있다.

특히 제17조의 2(남녀평등교육의 증진)에서는 구체적인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수립과 법의 집행 방안,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마련, 그리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운영 등을 밝히고 있어 「Title-IX」으로부터 파생되는 성별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들과 같은 효과를 기대케 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구체적인 ‘차별’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당연히 성별,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젠더를 중심으로 불평등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하여 제2조(정의) 제3항 다목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 하여 성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차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스포츠 관련하여 체육진흥의 모범 역할을 해온 「국민체육진흥법」에는 관련 내용 없지만 최근 공포된 「스포츠기본법」에서는 차별금지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스포츠진흥계획에 양성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과 관련해서 「학교체육진흥법」에서는 「Title-IX」과 같이 우리가 체육계에서 성평등 관련 입법을 기대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성별에 따른 교육현장에서의 차별금지 방침이 더욱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적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주기적 감독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서는 세부적인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sup>8)</sup>을 담고 있다.

## 2) 정부부처 및 단체의 성평등 대응

정부부처와 대한체육회 등의 단체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우선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근절대책에서는 당시 남성지도자가 약 90%를 차지하는 체육계의 남성지배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여성지도자 인턴십, 경기지도자 자격증 취득 시 여성 20% 할당제<sup>9)</sup> 등 특화된 양성체계를 마련한 바 있고, 이후 2010년 인권위 스포츠인권 헌장 및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성의 동등한 스포츠 활동 참여 권리 보장, 성적 불평등 구조와 남성 중심적 문화를 해소를 위해 여성 지도자를 적극 양성 지원, 여성 선수들이 포함된 경우 여성 지도자의 채용 우선 고려 등을 제시하여 스포츠계에서 성평등 기초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성폭력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선수·지도자·학부모 대상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이 모색된 바 있다.

스포츠계에서 인권침해가 크게 불거진 2019년 이후 관련 대책은 더욱 활기를 띠며 제시되었다. 2019년 인권위 직장운동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성평등 증진 및 고용촉진을 위해 평등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보장 정책 수립, 여성선수 경력단절 지원, 선수-가정 양립 보호체계 구축, 지도자 성비율 관리 필요를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고, 2019년 대한체육회는 10대 혁신과제로 2020년부터 대한체육회 사업계획에 양성평등 기초 확대하고, 여성 참여 제도적 보장하기 위해 여성임원·간부 비율 및 지도자 배치 확대, 그리고 체육인 성인지교육 의무 및 정례화 등을 제시하였다.

2019년 인권위의 여성전문체육인 실태조사 및 정책권고에서도 경기 참여 기회, 장비·시설 등 지원 등에서 여성선수가 차별받고 있다는 인식. 특히 보수, 고용형태, 계약기간에서 남녀선수·지도자의

8)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육 교재,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기준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등

9) 여성지도자 할당제를 발표한 2008년 이전 10년간(1998-2007년) 여성의 자격증 취득비율이 20% 이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졸속으로 비판받음.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고, 여성지도자의 49%가 성희롱·성폭력 경험했으며, 초등학생을 제외한 여성선수 응답자의 65%가 생리통이 있어도 훈련(경기)에 참가한 경험이 있고,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해 절반 이상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고 모성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sup>10)</sup>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따라서 관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자 선발, 취업, 성평등한 단체 운영, 고용차별에 대한 관리, 감독, 성평등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 실시, 모성보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직장내 괴롭힘 근절, 관련 징계 기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학교체육 현장에서의 성평등을 관장하는 「학교체육진흥법」제13조의2.(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은 ① “교육부장관은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에 따라 수립된 교육부 학교체육활성화추진기본계획에서의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적인 체육활동 환경조성 및 종목선정을 통한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신체능력을 반영하는 종목선정 및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학교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한다. 특히 2021년에는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추진목표로 4대 중점과제와 하위 22개 실행과제를 제시했으나 OECD 최하위에 해당하는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 대책인 여학생 관련은 1-7.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에 그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신체적 차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여학생 선호 종목, 특정 요일 여학생 우선 사용, 탈의실 확보=여학생 체육 활성화 기조 등 본질적인 교육 평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 4. 타이틀 나인이 말하려는 것

다시금 곱씹어 보지만 우리에게 정말 타이틀 나인이 필요한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법령과 제도들 속에는 교육분야에서 성평등을 위한 규정들이 이미 국제적인 기준에 근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천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미국 사회에서 「Title-IX」의 의의는 정책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실천했던 사례에 비추어 한국 사회에서도 한국형 「Title-IX」를 갈망해 왔던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그것이 미래인양 오해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법령과 국제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는 각종 규정들, 그리고 정부와 체육단체들의 시책들은 더 세부적인 실천 과제나 그 강제성을 담보하는 제재,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정부 부처와 단체들 간의 협력 관계강화 등과 같은 실천적 방안들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나 현재로도 충분히 성평등 기조에 대한 당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도 입법과 행정, 그리고 학계에서 새로운 정책인 양 소개되는 것들은 거의 모두 ‘돌려막기’의 산물이다. 이런 현상은 마련된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발생한다.

성평등을 비롯하여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의 경우, 인권은 보편성에 기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체육계의 사정, 즉 특수성은 ‘모든 사람’을 지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관행이라고 부르며, 권리를 주장한다. 이 같은 태도는 놀랍게도 체육/스포츠계에서 당위를 무력화하는데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스포츠 세계의 개별특수성이 인권논의의 보편성과 상충될 때 어떤 내용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당위의

10) 「헌법」 제32조 제4항,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법」 제8조 등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이 인권이 지향하는 보편성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들이 차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인권의 기본 방향은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이 질문을 체육계의 '특수성'으로 수렴하여 다루는 것과, 그것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인 발상이다. 따라서 체육계의 남성 중심 문화에서 인권적으로 도출해내야 할 성평등을 위한 과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의 과제를 상징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되어야 하며,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일련의 방침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미국 교육평등법 「Title-IX」도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성차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지,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평등 인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관련해 대부분이 '성폭력방지' 교육으로 국한되어 있어 문제가 있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등으로 확대 문제는 이에 대한 예산 및 조직 확보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스포츠 관련 각 기관들이 성평등 증진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해 운영한다면 효과적이겠으나, 그 기회를 확보하기조차 쉽지 않다. 일부에서는 교직원, 공무원처럼 인권교육(현행 폭력, 성폭력 방지 교육 말고!)으로 통합 운영하자는 주장들이 있지만, 이 통합의 내용이 폭력 등의 방지 교육과 성평등 증진 교육을 침해와 차별의 문제로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부터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시 현장에서 성폭력 방지교육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육현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적인 인식과 관행에 다른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차별 철폐의 당위성을 말하는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법령과 스포츠 원칙들이 이미 그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것은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상기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합의는 약속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우리는 이제 약속을 잘 지킬 공리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Title-IX」은 한국 사회의 교육 평등에 대해 입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맥락들이 구성하고 있는 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참고문헌

- 고은하(2004). 올림픽과 여성스포츠. 스포츠과학, 87, 22-28.
- 곽정현, 이선희(2014).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스포츠의 방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3(6), 299-311.
- 교육부(2020).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21). 2021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10. 12. 6.) 스포츠인권헌장 및 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0. 6. 23.).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21. 11. 25.). 여성전문체육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 국가인권위원회(2008). 국내 체육지도자 채용관행의 양성평등적 개선방안 검토 보고. 내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2020). 여성 전문체육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미간행 연구용역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 국가인권위원회(2022. 8. 3.). 2023-2027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결정문.
- 권형돈(2017). 여성스포츠선수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성폭력과 관련하여-. 법학논문집, 41(3), 267-298.
- 김성진(2014).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4), 59-77.
- 김창금(2010. 8. 24.) 학교 스포츠 '금녀의 벽'부터 깨라. 한겨레 인터넷판,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436576.html](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436576.html)
- 김현수(2018). 스포츠는 인권인가? 26(1), 19-34.
- 김현수(2020). 학생선수 스포츠인권 정책 분석과 개선방향: (성)폭력 피해구제와 보호를 중심으로.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8(3), 67-83.
- 김현수(2021). 인권과 스포츠. 서울: 노사이드.
- 김현수, 김동규(2013). 올림픽종목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사회철학적 쟁점.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1(4), 141-162.
- 박두제, 원영신, 이재희(2013). 여성 아이스하키 동호인의 경기 참여 촉진을 위한 실행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2), 127-144.
- 서재철, 김방출 (2020). Title IX을 '탈-신화화'하는 스포츠문화사 관점의 논의: 1970년대 미국 여학생들의 야구 참여 관련 법정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119-140.
- 안혜민(2021. 8. 6.). [마부작침] 도쿄올림픽의 성평등 어디까지 왔을까? SBS 뉴스[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1959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1959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이정규(2015). 학교체육의 양성평등 실현방안에 관한 연구: 타이틀 나인의 3가지 검사에 대한 활용. 44, 115-140.
- 전영지(2015. 6. 3.). [여학생체육] 美여자축구 최강 이끈 '타이틀9'의 힘, 한국형 '타이틀9'은? 스포츠조선 인터넷판,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6040100035340002\\_168&ServiceDate=20150603](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6040100035340002_168&ServiceDate=20150603).
- 조미혜, 강승애, 이은미, 허현미, 배경희, 김복희, 김원정, 김선희, 김애랑 역(2015). Title IX. 서울: 대한미디어.
- 하채림(2019. 11. 22.) 한국 청소년 운동부족 세계 최악...여학생은 146국 중 '꼴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2059700009>
- 한건수(2020). 한국 여자축구의 역사와 발전과정: 미국 여자축구와의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3), 227-235.
- IOC(2020a). Olympic Charter.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IOC(2020b). Olympic agenda 2020+5, 15 recommendations. Lausan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 「UN헌장」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체육진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스포츠기본법』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과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학교체육진흥법』  
『헌법』



# 발 제

## ④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초등 체육 수업’

이혜민 교사(세종 연봉초등학교)



##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초등 체육 수업’

이혜민 교사(세종 연봉초등학교)

### 1. 초등체육에서 양성평등의 실태와 문제점 이해

최근 학교 체육은 학생들의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코로나19로 인한 저하된 기초체력 향상, 신체활동 중심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긍정적인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양상이 스포츠클럽의 확대, 체육 수업 시수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신체활동이라는 과목 특성상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의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곤 하였다. 이러한 체육활동의 남녀 불균형은 세계적으로도 이슈화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초등 체육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중등과 비교하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체육활동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녀 합반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할 때 무의식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또 반대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체육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분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거나 겪을 적이 있다면 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까지도 알아봐야 한다.

첫째,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기피하거나 남학생에 비해 자신 없어 하는 현상의 원인의 첫 번째로는 실패하는 경험과 그것을 다른 친구들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위한 체육 수업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나, 기능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업목표를 정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반복되는 준비운동, 고정적 모듬 구성, 자세하지 않은 설명, 선생님의 부정적 언어 사용, 남학생 중심의 활동 등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엄우섭 외, 2015). 그러므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위한 체육 수업은 다양한 형태의 준비운동과 모듬 구성, 수업 내용에 대한 교사의 자세한 설명, 교사의 긍정적 피드백의 사용, 여학생을 위한 활동 내용 구성 등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2015 교육과정에서 경쟁, 표현, 여가 활동 등에 흥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표현활동을 싫어하며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싫어한다. 또한 교사들도 표현활동을 다른 영역에 비해 재미가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실제로 남녀 모두 표현활동을 정말 싫어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여학생들은 체육 수업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와 이를 유발하는 환경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사들은 운동을 통한 신체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여학생들의 체육 수업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운 날씨와 같은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뉴스포츠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엄우섭 등, 2015).

## 2. 양성평등 문제점에 관한 해결 방안 모색

지금까지 초등체육 수업의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봤다면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몇 가지 측면에서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 (1) 체육 수업과 실천의 변화

학생들의 실패 경험과 다른 친구들의 시선에 대한 해결 방안부터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육 수업 기피 요인’을 알아본 결과, 게임에서 졌던 경험, 운동을 못했던 경험, 잘하는 친구와 비교 당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체육 수업 참여하는 것을 싫게 만드는 친구’로는 실수하면 화를 내는 친구, 잘난 척 하는 친구, 나를 무시하는 친구 순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과 수업 방향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첫째, 설문 결과 결과를 본다면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협동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 필요하며, **기능보다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수업의 경우 배드민턴 기능을 익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수업이 아닌, 그 기능을 활용하여 상대방과 더 오랫동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를 이기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려고 상호 배려하며 코를 주고받게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로 점보스텍스를 활용한 수업을 들 수 있다. 점보스텍스를 모둠이 함께 쌓아 올리고 플라잉 디스크나 공으로 맞춰 쓰러뜨리는 활동이다.

또한, 기능보다는 가치 중심의 수업을 운영할 때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가치에 중심을 둔 중점사항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가치 보석’을 체육수업에 도입을 하는 것이다. ‘가치 보석’이란 체육수업에서의 능력보단 배려, 양보, 칭찬, 인정 등의 행동에 대한 보상행위를 말한다. ‘가치 보석’을 통해 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칭찬을 하면 ‘칭찬 보석’ 배려를 하면 ‘배려 보석’을 바로바로 눈에 보이게끔 주도록 한다. 그 밖에도 양보, 사과, 인정 등의 다양한 ‘가치 보석’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치보석’의 합을 통해 매 수업 MVP를 뽑는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날의 MVP를 그날 가장 뛰어나게 운동기능이 좋았던 학생이 아닌 가장 ‘가치 보석’을 많이 모은 학생에게 준다는 점이다. 이것만으로 체육 수업이 기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난 **고정된 모둠 구성**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흔히 체육 수업에서는 모둠을 나눌 때 훌쩍 또는 남녀 등의 일반화된 방법을 많이 쓰게 된다. 이러한 모둠 구성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 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오늘도 훌쩍으로 나누나요?”, “팀 언제 바뀌요?” 등의 물음이 나오게끔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팀 구성도 마찬가지로 시스템화 시켜 놓아, 아이들이 직접 팀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다. 학습 내용과 방식의 선정 등이 학생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습에 대한 흥미 및 유능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동욱, 조한무, 2003; 형구함, 이준우, 김응준, 최찬영, 최재일, 2007). 또한 학생들이 참여할 활동을 스스로 선택 혹은 구성하는 합의의 과정 속에는 학생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에 자연스럽게 참가자들의 기능 수준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기대감을 형성하고, 결과적으로는 참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교사 양성평등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한다(윤기준 등, 2021).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모든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 관련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남교사는 여교사보다 체육 수업 부장 또는 팀의 주장 역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교사에 비해 남교사가 '남자(혹은 여자)다운 신체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남교사가 여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평등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학생의 수업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임재은, 김진필, 박종률(2020)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남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수업 불평등'(학생 성별에 따라 다른 조건으로 수업하는 것에서 느낀 성차별)과 '역할 차별'(어느 한쪽 성에 높은 기대와 역할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차별)을 보다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 위주의 축구 수업 진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 위주의 무용 수업 진행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무용보다 축구 등과 같은 경쟁적인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운동기능이 높은 여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변화와 연계하여 해석할 수 있다(김윤희, 2007).

## (2) 정책과 제도의 변화

최근에는 남학생 중심의 활동을 여학생도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시도도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여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학교체육에서도 '여학생'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은 체육 수업에서 소외되는 대상으로서의 '여학생'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어 발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에서의 여학생에 관한 관심은 혼성학급 시행이라는 교육정책 내에서 '여학생의 체육활동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체육 교사들의 문제의식', '체육 수업에 대한 체육 교사들의 대응', '성평등 의식' 등에서 출발하였다.

이 시기 시작된 혼성학급 수업에 대한 체육 교사들의 대응, 성평등 의식, 여학생의 체육활동의 소극적 참여에 대한 체육 교사들의 문제의식 등은 체육 수업에서의 여학생에 관한 관심의 시작이었다. 이 시기 혼성체육수업과 관련한 초기 연구들은 체육 수업에서의 남녀학생별 인식, 수업 선호도, 학습 태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고(권순정, 곽은창, 1999; 곽은창, 박은서, 1998; 김윤희, 1999; 김종호, 임성호, 2003),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 체육수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업지도 전략 및 프로그램을 모색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다(강신복 등, 2003; 김무영, 조미혜 2006; 김윤희, 2007; 유정애, 김윤희, 2002; 이병관, 2002; 이표상, 2001; 이충원, 2003).

운동하는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장 먼저 '움직이도록' 해야 할 대상은 여학생이었다. 현장에서는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여학생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정책은 성공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현장의 교사들의 혼성학급에서의 여학생에 관한 관심, 즐거운 체육 수업에 대한 고민 등은 여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양산해 내었고, 이는 체육 교육 과정 내실화(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교육과학기술부, 2013),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교육부, 2013) 등 다른 정책과제들과 이어지며 현재 '여학생'을 학교체육 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 3. 생각해 볼 이슈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초등교사로서 체육 수업을 운영할 때 여학생들의 체육 수업에서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체육 수업을 기피하는지? 남학생에 주눅이 들어 체육 수업에 소극적이진 않은지? 어떤 점에서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부담스러워하는지? 등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점이 파악된다면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여학생들이 기능 익히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가치 중심의 수업을 하고, 협동 수업모형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여학생들이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교사가 체육 수업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잘 잡혀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무의식적으로 남성이 더 신체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체육반장은 남자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남성의 신체 능력 기준으로 활동을 구성하진 않았는지? 여학생과의 수준별 수업을 준비하는 등의 올바른 양성평등 인식에서 비롯된 수업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의 체육 수업에서의 양성평등 인식을 기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체육 활성화 정책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평등이라는 정책의 방향 아래 양적으로만 확대된 정책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로 이미 학교 현장은 여학생 관련 정책의 포화상태이다.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여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중심으로 집중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격의 보여주거식, 백화점 진열대처럼 화려한 물품 나열식 정책이 사회적 관심과 정책의 확대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의 정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 향후 연구에서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의 정책이 교육정책으로서 어떠한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발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의 분석·평가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정책연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그 연구 결과가 정책 수립의 밑거름이 되어야지만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이 '공평'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교체육정책과 어우러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체육 정책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학생이 남학생과 비교하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운동기능이 부족한 남학생은 더욱 큰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학생만을 강조한 정책이 오히려 여학생을 소외시키는 위험요인이 아닌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조건 없는 정책 수용이 아닌 이러한 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더 나은 양성평등을 반영한 체육 수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복, 이충원, 김택천, 고재범(2003). 중등학교 혼성학급 체육수업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7(1). 1-16.
- 곽은창, 박은서(1998). 중학생들의 체육수업 인식에 관한 주요 사건 기록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5(2). 57-70
- 권순정, 곽은창(1999). 중학생의 남녀공학 체육수업형태의 선호도와 체육활동에 관한 자아개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6(2). 13-27.
-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2013).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2013). 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 교육부.
- 김동욱, 조한무(2003). 전통적 수업과 자기주도적 개별화 수업 방법 비교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113-128.
- 김무영, 조미혜(2006). 여학생이 경험하는 스포츠교육과 양성평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4). 145-161.
- 김윤희(1999). 중학생들의 체육 수업 선호 이유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6(2). 93-110.
- 김윤희(2007). 체육수업에서의 양성평등에 관한 학생의 인식과 체험.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63-80.
- 김윤희(2010).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EMOTION' 수업 전략. 교육과정 평가연구, 13(3). 133-156.
- 김종호, 임성호(2005). 중학생들의 혼성학급 체육수업 경험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0(1). 39-55.
- 엄우섭, 한은상, 이정택, 차민철(2015). 초등학교 여학생 체육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4). 57-72.
- 유정애, 김윤희(2002). 양성평등 체육교육의 한계, 현실 및 도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9(2). 1-25.
- 윤기준, 신명진, 김기철(2021). 교사와 학생의 체육수업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홀리스틱 융합교육연구, 25(2). 117-133
- 이충원(2003). 혼성학급 수업에 대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전략 사례. 한국체육학회지, 42(3), 307-316.
- 임재은, 김진필, 박종률(2020). 혼성 체육 수업에서의 성차별 요인이 교과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3), 41-58.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종합토론

토론 1 : 최윤소 교수(건국대학교)

토론 2 : 주재현 변호사(Espouse Earth 대표)

토론 3 : 정용철 교수(서강대학교)

토론 4 : 남상우 교수(충남대학교)



## ‘체육교사와 함께하는 성 평등 학교체육 만들기’

최윤소 교수(건국대학교)

인구절벽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도 입학생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해당 사안을 한시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 학교들의 남녀공학 전환, 혼성학급으로 대체하는 등 학교현장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남녀공학과 혼성학급으로의 전환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더니 이 대안은 학교교육에서 성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특히, 체육교과는 신체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아이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성 불평등을 몸소 경험하며 이를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지금으로부터 8년 후면 곧 인구절벽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그리고 혼성학급으로 전환 된다면 체육수업 현장도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강원대학교 황향희 교수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특히, 황교수님의 발제 내용 중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수업에서의 역차별’이다. 체육교사들은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학생들에 비해 덜 활동적인 여학생들을 고려한 변형게임이나 뉴스포츠 종목을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활동적인 남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적극적인 체육수업에로의 참여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교사가 모두의 수업을 위해 여학생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면 남학생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다고 전통적인 종목으로 체육수업을 진행하자니 여학생들의 참여율이 낮아질 것은 뻔하다.

그렇다면, 혼성학급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한 수업을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토론자의 의문과 더불어 토론자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진행한 혼성수업과 분리수업에 대한 결과가 떠오른다. 해당 조사에서는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혼성수업과 분리수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7점 척도(7점은 매우 찬성한다. 1점은 매우 반대한다)에서 혼성수업은 3.96, 분리수업은 3.87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두 수치를 놓고 비교하자면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분리수업보다 혼성수업에 찬성하는 교사들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7점이라는 척도를 절대기준으로 놓고 따져보면 평균 3점대의 답변은 혼성수업도 문제가 있고 분리수업도 문제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는 현재 체육교사들이 안고 있는 딜레마와 직결된다. 혼성학급이라 혼성수업을 하면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분리수업을 하면 역차별의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작금의 추세와는 역행하는 모양새가 된다. 아직까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체육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일선 현장에 있는 체육교사들을 중심으로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이 함께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 한국여성체육학회 토론문 - 국제스포츠와 성평등에 대하여 -

주재헌 변호사(Espouse Earth 대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sup>1)</sup>라는 보고서에서 정립되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의 핵심 가치로 작용하였고, 이후 수많은 국제회의를 거쳐 2015년 유엔총회에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 구체화되었으며 현재 전지구적인 실천 의제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위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5번째 목표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여성을 모든 형태의 차별과 폭력, 유해한 관행, 가사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경제·공공부문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할 것을 실천 목표로 삼고 있다. 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여아의 권익신장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스포츠도 적극 동참해 왔다. 남성들로만 치러진 1896년 초대 아테네 올림픽에서 여성 선수 비율이 각 약 50%와 약 40%를 차지한 2021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르기까지 무려 1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sup>2)</sup>. 1979년 여성도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한 「여성차별철폐협약」<sup>3)</sup>이 UN 총회에서 채택되고 1981년 최초 여성 IOC 위원 2명이 선출된 이래 2022년 현재 여성 IOC 위원의 비중이 약 30%에 이른다<sup>4)</sup>. 선수들의 젠더투쟁<sup>5)</sup>과 희생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sup>6)</sup>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경청과 노력이 있었기에 그 시간마저 앞당길 수 있었다.

스포츠에서 지속가능한 성평등을 달성하기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 차선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故 최속현 선수의 산화로 도입된

- 1) 노르웨이 전 총리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Gro Harlem Brundtland)가 보고서 발간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함
- 2) ‘여성 선수 49%...도쿄 올림픽은 정말 ‘성평등’할까?’,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7951798>), (최종검색일: 2022. 11. 11.)
- 3)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rticle 10 (g) The sam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actively in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최종검색일: 2022. 11. 11.)
- 4) IOC, 2021, FACTSHEET-Women in the Olympic Movement, p.2, (<https://stillmed.olympics.com/media/Documents/Olympic-Movement/Factsheets/Women-in-the-Olympic-Movement.pdf>), (최종검색일: 2022. 11. 11.)
- 5) ‘스포츠사는 젠더투쟁 교과서... 하나둘 벽을 허물다’,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85814.html](https://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985814.html)), (최종검색일: 2022. 11. 11.) : 1967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여성 참가자 캐서린 스위처 case, 1973년 미국 테니스 남녀 성대결(빌리 진 킹 v. 바비 리스) case, 1984년 미국 LA올림픽 400M 무슬림 여성(무타와킬)의 최초 허들 금메달 수상 case, 2021년 도쿄올림픽 캐나다 농구 선수(킴 가우셔)의 모유 수유 case 등
- 6) ‘IOC becomes UN observer’, 2009, IOC, (<https://olympics.com/ioc/news/ioc-becomes-un-observer>), (최종검색일: 2022. 11. 11.) : IOC가 UN 제55차 총회에서 채택한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공로로 UN 총회의 Observer 자격을 취득하였음. MDGs의 3번째 목표는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표준계약서’의 전면 개정,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이나 대한체육회·대학스포츠협의회 「운영규정」에 성평등·모성보호·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도입 등은 시급한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호하는 미연방법의 「TITLE IX」이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도 필요하다<sup>7)</sup>.

하지만 ① 어린 시절(학창 시절)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마련(보장)<sup>8)</sup>, ②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③ 스포츠 산업(일자리)에 대한 세심한 안내는 지속가능한 스포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서 ‘스포츠 활동 참여’가 핵심이다. 여성의 참여는 스포츠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 여성의 국제적 리더십을 고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솔루션이다.

스위스 로잔에는 IOC와 함께 스포츠중재재판소(TAS/CAS)가 있다. CAS 이사진에는 前 캐나다 조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前 프랑스 주니어 골프 대표팀 출신, 前 스위스 스키 월드컵 우승자인 변호사들이 있다. 모두 스포츠에 참여해서 탁월한 성적을 내고 은퇴 후 성공적인 법조인 경력을 쌓아 가는 여성 변호사들이다<sup>9)</sup>. 이들의 행적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내야 한다. 이들을 양성한 제도와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7)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연구원 이재희가 작성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위헌심사(2018)’를 참고하였음(p.2)

8) 주종미, 2015, ‘학교체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정정책 제언: 미국 TITLE IX의 응용’, 스포츠와 법 제18권 제1호, p.66 : ‘정부에서도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지하여 ‘학교체육내실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체육에 소질 있는 학생지원’ 등의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인데, 이러한 정책이 수립된 배경에는 ‘여학생의 체육활동 부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학생의 체육활동 부진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는데, 10대 여자 청소년의 경우 67.8%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9) Members 2019-2022 of CAS, (<https://www.tas-cas.org/en/icas/members-2019-2022.html>), (최종검색일: 2022. 11. 11.)

## 대한민국 스포츠는 평평한가? '과연, 한국형 타이틀 나인,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

정용철 교수(서강대학교)

김현수 선생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현재 여성의 스포츠참여를 보장하고 거버넌스의 포지션에 더 많은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는 국내외 법적 근거에 대해 성실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거칠게 이야기 하자면 이미 법적인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의지가 없어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과연 한국형 타이틀 나인,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건지 아닌지 조금 애매한 느낌입니다.

알다시피 타이틀 나인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교육기관에게 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숫자를 강제하게 만든 법입니다. 물론 미국의 예에서도 타이틀 나인이 아무 저항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비인기 스포츠(예를 들면 레슬링, 수구)를 중심으로 남녀 선수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해체되는 운동부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 수영부는 신설하는 반면 남자 수구팀은 해체되는 거죠. 당연히 밥줄이 걸린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인기 남성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남성 비인기팀이 해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식축구부에 있었습니다. 백 명에 가까운 남자 선수들이 한 운동부에 집중되는 현상은 눈을 감고 애꿎은 여자운동부를 상대로 화를 내고 있었던 거지요. 미국 대학스포츠의 가장 대표적인 레버뉴 프로듀싱 스포츠인 미식축구는 건드리지 못한 거죠.

타이틀 나인을 통해 여자 운동부의 남성 코치의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자매애로 봉사차원에서 선수들을 지도하던 여성코치들은 양질의 포지션이 된 여성스포츠 지도자 자리에 새로 진입하는 남성코치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받던 여성선수들은 원래 가르치던 동성의 코치를 선호했지만 밀려드는 남성 지도자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스레 운동부 운영이나 학교의 지도자급 직위를 가진 여성의 숫자도 줄어듭니다.

위에서 지적한 저항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나인은 여성의 스포츠참여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수혜를 받아 스포츠에 참여하는 여학생 선수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난 여성 스포츠참여자의 수가 남성의 수를 초과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남성 스포츠 참여자 비율에 가깝게 증가한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할 특수성을 강조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로 타이틀 나인이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한국형 타이틀 나인 논의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실질적인 이행수단입니다. 미국의 경우 그 수단은 주정부의 예산지원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산지원을 중지입니다. 이 법안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주던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유연성도 함께 제시합니다. 유예기간도 주고 반드시 50%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나아진다면 그 집행은 유예하는 방식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유연하지만 실질적인 강제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타이틀 나인 논의에서 빠져있었던 부분이 이 강제의 부분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서 강제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성 지도자를 더 포함하려고 해도 그 자격을 갖춘 여성지도자가 없다'(과거 한국형 타이틀 나인 논의를 할 때마다 너무 자주 들었던 이유)며 진전이 없었던



배경입니다. 예산을 통한 강제는 강력합니다. 가까운 예로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가 최저학력제와 같은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 회원대학에 교부하는 지원금을 최저학력제 달성 여부에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 많았던 CO롤은 지속적으로 정착되어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의 CO 미만비율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법적인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입니다.

그 외의 발제내용에 대해 대체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하나 글의 마지막 부분 두 가지 지점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성평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다양한 성들이 차별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시작되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인권의 기본 방향은 '모든 사람'을 전제로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근거하여 이 질문을 체육계의 '특수성'으로 수렴하여 다루는 것과, 그것을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특별한'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비인권적인 발상이다(발제만 8쪽).

앞서 언급했던 마치 성평등 정책을 특수한 성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으로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성평등 문제에 보편성으로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여전히 현실을 좀 나이브하게 본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수성을 주장하는 것과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편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특정시기 동안 잠정적으로 '특별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실행이 담보되는 장치가 있는 해결책 말입니다.

체육현장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차별 철폐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는 성평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기본권의 문제로 보고,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전통적인 인식과 관행에 다른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발제만 9쪽).

성폭력 근절, 다시 말해 인권침해 방지의 수준을 넘어 또 다른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상식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이런 주장의 결과 오히려 체육계 내의 주요한 침해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타깃의 범위를 넓혀 오히려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단순하지 않습니다만!) 모든 차별의 철폐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 체육계에서의 완벽한 성평등의 실현, 그리고 더 많이 더 큰 힘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그동안 체육계 내 쌓여왔던 '전통적인 인식과 관행'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십 년전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여성체육학회에서 '불온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습니다. 그 발표에서 여성의 스포츠참여 증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여성이 스포츠를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좋아서가 아니라 남성위주의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들을 걷어내고 스포츠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는데 여성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을 스포츠화하기 보다(spotization of women) 스포츠를 여성화(womenization of sports)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스포츠 현실에 대한 제 생각은 그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포츠는 아직 평평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울어져 있고 그 기울기는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강제할 수단을 갖춘 특별한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 학교 운동장: 젠더 평등 실현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

남상우 교수 (충남대학교)

### 장면 #1

“여자가 요리를 잘하니까 주방에서 주인이고, 우리(남자)는 운동을 잘하니까 우리가 (학교) 운동장 주인이죠.” 축구를 하며 운동장을 독점한 남자 중학생들의 말이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집단으로 형성된 이런 멘탈리티를 나는 ‘주인(主人)사고방식’으로 명명하였다.<sup>1)</sup> 능력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으로서,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이 그 장소를 차지하는 게 공평하다’는 도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남학생뿐 아니라 여학생들도 이런 도식에 동의한다는 사실이다. 운동장 주인은 남학생이라는 거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운동장을 쓰려면 남학생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의 ‘관용’을 기대하는 것이다(나이키 광고 ‘Let Me Play’의 한국판이다). 급기야 여기엔 체육 교사까지 공모자로 참여한다. 운동장 중앙에서 피구하면 안 되냐고 묻는 여학생에게 체육 교사는 되뇌인다. “남학생들이 허락해주려나?”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젠더 질서(gender order)를 볼 수 있다.

### 장면 #2

“왜 안 뛰니?” 분명 체육 시간인데 여학생들은 그늘 쪽으로 가 앉는다. “살타요.” 운동장은 프라이팬이 아니다, 나가서 뛰거라, 말해도 소용없다. 여고에서 체육 교사로 지내던 시절, 여학생을 향한 내 고민은 한결같았다. ‘여학생들은 원래 뛰는 걸 싫어하나? 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체육 수업에 참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남녀공학으로 옮기니 이제 정반대의 고민이 생겼다. 교실에서 체육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장대비 내리던 날, 남학생들은 이런 날에 축구를 해줘야 고등학교 추억의 한 획을 긋게 된다는 궤변을 쏟아내며 나를 압박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축구 유니폼을 입고 교무실 앞에서 리프팅을 하더라. 무언의 시위다. 어쩔 수 없이 나가라 했더니 세상 다 가진 아이처럼 신나게 물구덩이 속에서 축구를 한다. ‘남자 녀석들은 원래 뛰는 걸 좋아하지. 이놈들, 어떻게 해야 교실에 앉힐 수 있을까?’ 그 당시 난 남학생을 이렇게 바라봤다. 신체활동의 양극화. “남학생은 더욱 발달한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자 더 많은 활동량을 보이는 반면, 여학생은 더욱 성숙된 자신의 여성다움을 지키기 위해 활동량을 줄인다.”<sup>2)</sup>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신체 활동량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 장면 #3

일명 ‘자체’로 불리는 자율적 체육 시간이 주어지면 남학생과 여학생이 선택하는 종목은 극명하게 나뉜다. 남학생은 축구, 여학생은 배드민턴이다. 그런데 가끔 남학생들 몇 명이 축구를 하지 않고 운동장 옆쪽에서 배드민턴을 치곤 했다. 그럴 때면 꼭 일이 터진다. 격렬하게 축구를 하던 남자애들과 배드민턴 치던 애들이 부딪힌 것이다. 방해된다고 생각해서였을까. 축구 하던 남학생들은 분노하며 소리친다. “저리 꺼져, 계집애같이!” 이들에겐 ‘축구=지배적 남성성’이고, ‘배드민턴=여성성/핍박당할

1) 남상우 (2016). 운동장에서의 젠더 중심화와 주변화: 중학생들의 체화된 젠더 질서 사고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133-151.

2) 이창섭, 김재운, 남상우 (2001). 청소년의 연령별 체격 발달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연구지, 18(1), 23-29, 27쪽.

남성성'의 도식이 자리 잡았던 게다. 남성적인 스포츠와 여성적인 스포츠가 규격화되었고, 그 규격에 맞춰 참여하는 게 정상이라 믿는 현상. 그걸 '젠더 규범(gender norm)'이라 한다. 학교 운동장에서 작동하는 젠더 규범은 흥미롭게도 사회적 맥락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정 직업, 지위, 활동에 여성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성은 체육부장에 어울리지 않고, 팀 감독을 맡을 수 없으며, 남자 경기 심판과 조화롭지 않다고 생각한다.<sup>3)</sup> 학교 운동장에서의 젠더 질서는 사회로 확장된다.

#### 장면 #4

초등학교 남학생의 던지기가 조금은 서툴렀다. 뭐, 그럴 수 있다. 던지기를 많이 안 해봤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운동장에 같이 있던 남자애들이 웃으며 한 마디 던진다. “야! 넌 무슨 계집애처럼 던지냐!” 그 순간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여자애처럼 던지기(throwing like a girl)’란 유명한 현상학적 연구 제목이 생각났다.<sup>4)</sup> 안타깝게도 남자애들이 웃으며 던진 저 말은 칭찬이 아니다. 우는 아들에게 ‘계집애처럼 운다’고 책망하는 아버지나, 뽀뽀기가 서투른 남학생에게 ‘왜 그렇게 계집애처럼 뛰냐’는 체육 교사의 언급은 사회적으로 낮은 여성다움의 가치가 스며 들어가 발현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 ‘왜 여자애/계집애처럼 던진다는 표현은 약함을 상징하게 되었나?’<sup>5)</sup> 중요한 건 여성이 선천적으로 약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약함’은 오히려 학습된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학습된 유약함(learned weakness)이 마치 선천적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오인(잘못된 이해)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러한 오인을 자연화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학교 운동장이다.

#### 장면 #5

2006년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고3 여학생반을 전담으로 맡게 되었다. 체육부장에게 축구 수업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당당하게(!). 전방위적 압력이 들어왔다. 부장부터 교감, 심지어 교장까지 나섰다. “남 선생, 여자애들이 무슨 축구입니까, 애들 다쳐요. 애내들 3학년이에요. 입시생이라고!” 학교 잘리는 줄 알았다. 그때 3학년 부장이 지원군으로 등장했다. 학생 판단 기준이 하나였던 분이다. ‘축구를 잘하는가?’ 축구를 잘하면 인성도 좋다고 믿는(?) 축구광이었다. “남 선생, 교감과 교장은 내가 설득하리다.” 다음날 또 한 명의 지원군이 등장했다. 학부모회 회장. 3학년 여학생의 어머니로서, 연구원이었다. 미국 유학 시절 라크로스를 했다고 한다. “축구 하신다고 아이한테 들었는데, 확정됐나요?” 반대가 너무 심해 접으려 한다고 하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아이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냥 하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날 교감이 나를 찾아왔다. “조심해서 하세요. 다치면 안 됩니다.” 그 해 여자 축구 수업은 성공했을까? 꽤 성공했다. 축구공을 따로 사 드리블하며 등하교하던 아이부터, 수업 시작종이 치기 전에 미리 나와 시합을 준비하던 아이들, 남자애들 섭외해 연습 경기를 하는 조까지 나왔으니까(물론 부상자도 많았다). 핵심은 교사의 적극적 개입과 경쟁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었다. 여학생들도 승부욕 강하고, 게임에 지면 운다. 그래도 재밌단다. 그렇게 스포츠를 배운다. 우리는 또 물어봐야 한다. 체육 수업을 주관하는 체육 교사는 이 사실을 믿는가? 그 믿음이 수업 설계로 이어진다.

3) 남상우 (2019). 체육행정조직 내 성차별 양상 개념화. 한국체육학회지, 58(2), 65-75.

4) Young, I. M. (1980). Throwing like a girl: A phenomenology of feminine body comporment motility and spatiality. Human Studies, 3(1), 137-156.

5) 남상우 (2021). 스포츠사회학(4판). 대전: 궁미디어, 347쪽.

### 학교 운동장은 젠더 평등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는가?

학교 운동장은 흥미로운 곳이다. “친구들 간의 집단 문화가 형성되고 젠더와 관련된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관찰되는 장소일 뿐 아니라 아이들이 우정이나 리더십, 관계, 외모나 경쟁, 역량, 권력을 향한 개인적 감각 등의 규범이 만연한 곳”<sup>6)</sup>이기 때문이다. 또한 젠더 관계에 따라 ‘신체활동의 모퉁이화(化)’<sup>7)</sup>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연화하는 곳이기도 하다. 나아가, 운동장은 “날쌔 기운과 함께 경쟁력을 키우고 힘을 기르는 곳이자 통제되는 힘, 즉 규제와 규칙에 대한 복종의 학교”<sup>8)</sup>이며, 중요하게는 학생들에게 “신체활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주는 장소”<sup>9)</sup>로 만들어가며 젠더 평등이 실현된 가상의 사회를 재현해볼 수 있는 일종의 모의 실험장이기도 하다. 이해민 선생의 글이 중요한 이유다. 초등학교 체육이야말로 젠더 평등의 리트머스 시험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이해민 선생의 발제문을 읽어보자. 나는 이번 발제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을 이해민 선생이 3장(생각해 볼 이슈들)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제안으로 본다. 향후 방향성을 가장 폭넓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제안을 바탕으로 향후 학교 운동장에서의 젠더 평등, 나아가 한국 체육계의 젠더 평등을 고민하는 데 무엇에 집중할지를 건의하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먼저 이해민 선생이 제시한 세 가지 생각해 볼 이슈를 정리해보자.

첫째, 현황 조사 제안이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에서 겪는 어려움(고충)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하다. 참여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촉진할 방안을 고민할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이해 제안이다. 교사가 과연 체육 수업에서의 젠더 평등(양성평등)을 인식하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 수업에 학생들의 양성평등 인식을 기를 수업 방식을 고민하자는 제안이다.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기에 이 제안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다. 셋째, 정책적 제안이다. 지금까지 여학생 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루어졌던 여러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으로서, 행여 이런 정책이 역설적으로 ‘운동기능이 부족한 남학생의 역차별로 기능하지는 않는지’, 나아가 ‘그런 정책이 오히려 여학생을 소외시키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자는 뜻이다. 격하게 동의한다.

나 또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앞으로 학계에서 학교 운동장 혹은 더 넓게는 스포츠계 전체에서의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고민해 볼 주제다(물론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기도 하다).

첫째, 젠더 가치의 사회학적 고민이다. 무슨 말인가?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젠더 불평등, 나아가 스포츠계 전체에서의 젠더 불평등은 ‘여성다움의 가치 절하’에서 기인한다. 즉, 남성적인 것이 스포츠계에서 과대 가치화된 반면, 여성다움은 과소 평가되었다는 사실. 이는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학생들마저도 남성다움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여학생과 체육 교사도 공모한다. 어떻게 하여 ‘여성다움(femininity)’은 스포츠계에서 낮은 가치를 부여받고, 반대로 남성다움(masculinity)은 왜 높은 가치의 망토를 두르게 되었을까? 나아가, 스포츠계에서의 여성다움이란 게 과연 동질한 모습과 성향을 지니는 사회적 구성물일까? 남성다움에도 ‘위계(hierarchy)’가 있지 않을까? 이들 질문은 중요하다. 젠더 그 자체에 대한 고민에 답을 해야, 이후 스포츠계의 젠더 평등을 위한 남성성(남성다움)/여성성(여성다움)의 새로운 질서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첫 번째 질문을 이어받아 젠더의 스펙트럼을 넓히자는 제안이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을

6) Boyle, D. E., Marshall, N. L., & Robeson, W. W. (2003). Gender at play fourth-grade girls and boys on the playground.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6(10), 1326-1345, 1327쪽.

7) 남상우, 이창섭 (2006). 학교에서의 신체활동과 젠더의 재생산.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9(3), 441-458, 447쪽.

8) 박노자 (2009). *썩썩한 남자 만들기*. 서울: 푸른역사, 27쪽.

9) 남상우 (2016). 운동장에서의 젠더 중심화와 주변화: 중학생들의 체화된 젠더 질서 사고방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9(3), 133-151, 147쪽.

넘어 남학생들 간, 여학생들 간, 나아가 다양한 ‘젠더-들’에 집중해보자. 남성적인 것은 절대 동질적이지 않다. 이론적으로도 남성적인 것의 최상위층에 지배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중심으로 공모적, 주변적, 종속적 남성성으로 위계화된다. 여성적인 것 역시 두드러진 여성성(emphasized femininity)<sup>10)</sup>에서부터 양면적, 복종적, 저항적 여성성(남성 권력이 요구하는 강조된 여성성에 저항하는 행위 유형)에 이르기까지 여러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뿐인가? 남성스러운 여자에서 여성스러운 남자, 주어진 성과 인식되는 성이 다른 트랜스 젠더를 포함한 LGBTQs까지, 우리 사회와 스포츠계에는 다양한 젠더-들이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남성 대 여성이란 이분법적 논의로만 스포츠계 젠더 불평등을 다루는 상황이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스포츠계는 단순한 세계가 아니다. 관점의 확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셋째, 체육 교사가 중요하다는 제안이다. 젠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선 특정한 개입이 필요하다. ‘법’이 대표적이다(미국의 Title IX). 그렇다면 학교 체육 맥락에서 젠더 불평등 완화를 촉진할 핵심적인 개입 요소는 무엇일까?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사’다. 체육 교사가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교 운동장을 조직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젠더에 따른 신체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젠더 질서에 동조하는 공모자로 참여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의 신체활동은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가치관으로 참여할 것인가?<sup>11)</sup> 여학생들은 원래 운동을 싫어한다는 관념을 지지하며 방치된 기존 운동장의 젠더 질서 속에서, 학생들은 신체활동과 연관된 남성성의 가치 절상과 여성성의 가치 절하 습속을 암묵적으로 학습, 그 학습 결과는 의도치 않게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불평등한 젠더 질서로 편입된다. 이러한 질서를 바꿀 수 있는 건 무엇보다 교사다. 교사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학교 운동장은 젠더 평등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자, 우리는 이 주제를 앞으로 어떻게 논의해야 할까? 학교 체육에서의 젠더 평등과 관련하여 제시하는 세 번째 고민이다.

## 결론

“스포츠계 젠더 평등이란 건 모든 사람을 정확히 똑같이 대하라는 걸 의미하기보단 사람들의 ‘이해관계(관심), 요구, 우선순위’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성으로 인정해야 한다.”<sup>12)</sup>

학교 체육이 이루어지는 운동장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이곳에서의 젠더 평등은 앞선 인용문이 말해주는 방향으로의 실천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운동장이라는 곳에서 신체활동을 매개로 젠더 감각을 습득한다. 그렇게 습득된 감각은 이후 다른 사회 공간에서의 미시적 실천에 개입되고, 일상의 실천이 누적되며 사회구조로 구축되어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주도하는 사회적 틀로 기능하게 된다.<sup>13)</sup> 이와 같은 기제에 의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스포츠 활동은 남성에게 어울린다’는 관념을 자연화한다. 그러면서 여성의 스포츠 활동을 사소화하고 주변화한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 맥락을 사회학적으로 이론화해야 할 이유다.

이혜민 선생의 글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등 체육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신체활동 양상의 남성적 중심화와 여성적 주변화 경험은 이후 전 생애적으로 고착될 젠더

10) 두드러진/강조된 여성성이란 “여성스러움의 이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그 논리에 순응하며, 그 특성을 길러내는 등, 남성 권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직화된 행동 유형”을 의미한다[Connell, R. (1987). *Gender and power: Society, the person and sexual politics*. John Wiley & Sons, 188쪽].

11) 남상우, 이해령 (2019). 초(超)남성적 학교체육 문화 내 여자체육교사의 젠더 수행 이론화.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2(1), 1-19.

12) de Soysa, L., & Zipp, S. (2019). Gender equality, sport and the United Nation's system: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slow pace of progress. *Sport in Society*, 22(11), 1783-1800, 1785쪽.

13) 남상우 (2017). 한국스포츠사회학에서 사용되는 사회구조 개념의 다차원적 의미 속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2), 111-132.

감각의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체육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활동이 자조직(self-organized)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은 그들끼리의 조직화 과정에서 젠더, 운동능력, 신체 특징, 권력 관계 등의 여러 요소가 개입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향성을 지닌 개입(대표적으로 교사 중심의 수업 조직화)이 부재한다면, 학교 운동장에서의 신체활동 관계는 말 그대로 '자연'의 논리, 즉 '약육강식'의 논리로 형성될 수 있다. 젠더 위계란 게 이렇게 형성되어 고착된다. 어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중요성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젠더 양상에 소홀하였다. 전 세계 스포츠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젠더 평등 운동을 가속화하는 최근, 이번 학술대회의 여러 주제 발표, 나아가 이해민 선생의 글을 기점으로 향후 스포츠계 젠더 연구의 박차를 가하길 기대한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네트워크 종합포럼 및  
2022 한국여성체육학회 추계학술대회

# 포스터 발표

## 인문사회

- 61 벨리댄스 인식변화를 위한 고찰  
황향희 · 박그레이스(강원대학교)
- 62 학교와 청소년 수련활동 연계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역할탐색  
이가람 · 원재윤 · 김선희(국립목포대학교)
- 63 MZ세대들의 골프 참여의도 분석: 사전지식의 역할  
한지훈 · 사혜지(연세대학교)
- 64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추구충족과 획득충족  
허단비 · Chen Tian · 조유미 · 김태희(성균관대학교)
- 65 골프장 여성 캐디의 직무소진 관리를 위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관한 연구  
Mao Hongning · 최승리 · 유희령 · 김태희(성균관대학교)
- 66 초등학교 체육교과 표현활동 영역에서 한국 민속무용 탐색  
김희애 · 김선희(국립목포대학교)
- 67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골프장 재방문의도 분석  
: 중년층을 중심으로  
박지윤 · 김민정 · 최나영(한국외국어대학교)
- 68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의미 고찰  
오주연 · 정유성(국립목포대학교)
- 70 2022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개정을 위한 현장교사의 인식 연구  
양한나(백석대학교) · 양윤정(서울대학교)
- 71 남녀의 혼성풋살 참여 경험과 의미 탐색  
염희옥 · 정진욱(동국대학교)

## 자연과학

- 73 호흡 중재 운동(TSEEB;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with Expansion Breathing)이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강의수 · 정진욱(동국대학교)
- 76 필드하키 특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HST; Hockey Specific Training)이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 관련 체력 및 GPS 변인에 미치는 영향  
최민경 · 정진욱(동국대학교)
- 78 플립러닝 기반 커버댄스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조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신영(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선경(영지대학교) · 김민정(한국외국어대학교)



## 벨리댄스 인식변화를 위한 고찰

황향희 · 박그레이스\*(강원대학교)

서론: 벨리댄스는 1995년 국내에 도입되어 2002년~2005년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었으며, 이후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연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벨리댄스는 창의적으로 개성을 표현하고, 체형을 교정하며, 유연성 강화와 아름다운 자세(Attitude)를 만들 수 있는 실용무용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대중이 가지고 있는 벨리댄스에 대한 인식은 예술성, 전문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축제나 행사에서 흥미와 재미, 볼거리 위주로 관망되는 춤으로서 관능미와 선정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대표된다. 가슴과 골반 부분을 과감히 노출하고, 특히 여성성을 강조하는 동작과 몸짓으로 인해 춤을 추는 무용수, 예비 참여자, 관객들은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편적 부분만으로는 고착화 되어진 벨리댄스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벨리댄스가 공연예술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여가활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실용무용으로써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내·외 대회 및 페스티벌에서 소개된 장르 외 미발표된 장르는 국제댄스연맹 IDO(International Dance Organization)의 2022년 공식 규칙(IDO Dance Sport Rules & Regulations)에 따라 구분된 4가지 장르별 정의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첫 번째, 오리엔탈 벨리댄스(Oriental Belly Dance)는 아랍 전통 오케스트라 연주와 아랍 전통리듬을 바탕으로 멜로디가 있는 음악 또는 가수와 함께 연주에 맞추어 정교한 힙(Hip) 동작과 상·하체가 분리된 의상을 입고, 동적인 움직임보다 무용수의 감정과 표현이 중요하다. 두 번째, 포크로릭 벨리댄스(Folkloric Belly Dance)는 북아프리카, 아랍 및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라비아 문화의 영토 국가 춤으로 민속성을 강조하는 특징적 움직임(Movement), 매너(Manner), 주제(Theme)를 포함하고, 무대 소품이나 액세서리도 포크로릭 스타일로 구성되어야 한다(IDO, 2022). 무와사하트(Muwashahat)는 포크로릭 벨리댄스의 한 종류로, 복부 노출과 헤어를 사용하는 동작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고전적인(Classic) 아랍 형태의 음악과 발레(Ballet) 요소를 가미하였다. 몸통의 움직임이 거의 없이 절제된 벨리댄스 동작과 간결한 쉬미(Shimmy), 발레 폴드브라(Port de bras-팔 포지션)를 사용하여 팔과 다리의 움직임을 활용함으로써 아름답고 우아한 분위기를 표현한다. 볼륨이 있는 바지(Pants), 조끼(Vest), 바닥에 닿는 길이가 긴 가운(Long Robe), 여러 겹 또는 여성스러운 소매, 다양한 머리 장식(모자, 스카프)과 굽이 있는 구두를 착용한다. 세 번째, 퓨전 벨리댄스(Fusion Belly Dance)는 다른 장르의 무용 요소(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방송안무 등)를 접목하거나 다양한 도구(베일, 팬베일, 워 등)를 사용하면서 다른 장르의 음악, 의상을 융합한 화려한 무대 형식의 퍼포먼스(Performance)가 특징이다. 네 번째, 쇼 벨리댄스(Show Belly Dance)는 아직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장르이다. 벨리댄스 기술과 쇼(Show)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환상적인(Fantastical) 분위기를 구성한 플롯(Plot) 형식의 서론(Introduction), 클라이맥스(Climax), 피날레(Finale) 순서로 스토리(Story)를 전개하고, 다양한 무용 요소를 융합하는 것이 특징이다(IDO, 2022). 그 외 이집트 벨리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모하메드 레다(Mohamoud Reda 1930-2020)와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현대 이집트 출신 유명 마스터 선생님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각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결론: 벨리댄스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생활체육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아랍 세계의 민속무용과 음악적, 예술적 요소를 더하여 전문적인 수준의 공연예술과 여가활동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대중의 인식변화를 위해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 kmagrace2017@gmail.com

## 학교와 청소년 수련활동 연계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역할탐색

이가람\* · 원채윤\*\* ·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청소년 수련활동 연계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고 학교와 수련활동 연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담당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학교와 수련활동 연계교육이 갖는 교육적 의의는 무엇인가? 둘째, 학교와 수련활동 연계교육을 위한 담당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범위는 학교교육과 연계교육기관에 관한 선행연구로 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별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교교육과 연계교육기관에 관한 연구만을 선별하여 내용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와 청소년 수련활동 연계교육의 교육적 의의는 각 분야의 수련활동을 진행하는 수련교사들과의 활동을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의 학습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자연과 시설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결과보다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중시하고, 직접적이고 함께 협동하는 학습을 통해 그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실질적 지식과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 연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변화에 따른 수련활동 지도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담당교사의 연수내용은 수련시설 측이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요구와 협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연수내용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교육과정 등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활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당교사와 수련교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련시설 내 교사중심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개발 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정기적인 수련활동 프로그램 설명회를 함께 기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청소년 전인교육의 필수적인 청소년 수련활동과 학교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련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내 지역학교와의 교과과정과 직접 연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하며,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교과목 간의 통합교육활동이나 학교행사로 활용하여 연계한다면 학교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관내 지역학교 교사들도 지역 청소년 수련교사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청소년 교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가람 linegaram@naver.com

\*\* 원채윤 teamplay2013@hanmail.net

## MZ세대들의 골프 참여의도 분석: 사전지식의 역할

한지훈 · 사혜지\*(연세대학교)

최근 MZ세대에게 골프가 급부상하며 신흥 골프 산업의 성장이 높아지고 있다(나도혜, 2022). 골프의류, 골프용품 등 골프산업계에서는 MZ세대들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들을 제시 할 만큼(노우래, 2022), MZ세대들의 골프 참여는 골프산업의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골프 인구의 증가와 골프 산업계 전반에 MZ세대들의 확산세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시점에서 MZ세대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무엇 보다 중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행동을 보다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골프 참여에 관한 결정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주요 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계획행동이론에 골프참여에 대한 사전지식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통해 MZ세대들의 골프참여 의도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태도는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은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사전지식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사전지식은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 수행을 위한 측정도구는 Ajzen(1991)의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지훈(2022), 한희섭, 현성협, 황진수(2014)연구에서 사용한 태도 7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지각된 행동 통제감 3문항, 사전지식 3문항, 참여의도 3문항 총 19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샘플 크기는 'A-priori Sample Size Calculator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s'(Soper, 2021)에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샘플 크기를 계산 하였으며, 2022년 9월 온라인전문 조사 회사를 통해 설문이 진행되었다. 랜덤샘플링(random sampling)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93명의 표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과 AMO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참여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사전지식은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둘째, MZ세대들의 골프참여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감과 사전지식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MZ세대들의 골프참여는 사전지식이 골프참여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사전지식이 있더라도 참여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골프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골프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lv010@hanmail.net

##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추구충족과 획득충족

허단비 · Chen Tian · 조유미 · 김태희\*(성균관대학교)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과 인터넷 및 미디어 인프라의 발전은 기존의 텍스트와 이미지 위주였던 콘텐츠를 동영상 위주의 형태로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동영상 콘텐츠 시장을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떠오르면서 스포츠 산업 분야도 유튜브를 마케팅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프로스포츠 중 프로야구는 10개의 구단 모두 자체 채널을 통해 선수 및 팀, 경기 관련 정보 등 다양한 소식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여 선수 및 구단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선수와 팬들 사이의 소통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콘텐츠의 활성화 속에서도 프로스포츠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이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구단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프로야구 유튜브 콘텐츠 이용자들이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용자들은 프로야구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얻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와 동시에 그들이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구단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가 기대하는 추구충족(GS)은 무엇이고 실제 획득한 획득충족(GO)은 어떠한지,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85부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하여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대응표본 T-test, 그리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추구충족 및 획득충족은 정보, 사회교류, 오락, 시간소비, 대리만족으로 구성되며, 추구충족 및 획득충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정보, 사회교류, 오락, 시간소비, 대리만족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획득충족 중 오락, 시간소비, 대리만족은 지속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 사회교류는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의 사회교류, 대리만족 추구충족과 획득충족의 차이는 지속사용의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정보, 오락, 시간소비 추구충족과 획득충족의 차이는 지속사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콘텐츠 시청자들의 추구충족과 획득충족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획득충족과 추구충족-획득충족의 차이는 지속사용의도에 선행요인을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측정방법에 따른 지속사용의도에 대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측정방법 중 SERVQUAL과 SERVPERF 가정을 적용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로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청자의 지속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많은 양의 콘텐츠를 제공하기보다 이벤트, 영상 공유 등 시청 후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여러 동영상 미디어 플랫폼 중 유튜브 사용자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프로구단의 필수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imtaehee@skku.edu

## 골프장 여성 캐디의 직무소진 관리를 위한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에 관한 연구

Mao Hongning · 최승리 · 유희령 · 김태희\*(성균관대학교)

최근 현대인이 추구하는 '웰빙'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하면서 9홀 이상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프장 사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골프장 간의 경쟁심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된다. 특히, 골프장의 경쟁 심화는 골프장 간의 인적자원 이동을 심화시킴으로써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와 관리는 경영자들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골프장 캐디는 골프장의 대표적인 인적자원으로 이들의 주된 역할은 고객과 직접 접촉하여 라운딩을 도와주는 것이기에 골프장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업무 특성상 소화불량, 질환 등 육체적 스트레스를 지속 경험하며, 고객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감정표현을 조작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감정상태를 가지도록 강요받는다. 더욱이 국내 대부분의 캐디들은 여성들로 유교적 문화권에 속한 한국의 경우 여성들의 감정노동규범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 캐디들의 감정노동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캐디들의 업무조건과 감정노동은 직무소진을 발생시킨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은 조직에 있어 인적자원역량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한다. 직무소진을 경험하는 종사자들은 종사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질 낮은 서비스의 제공, 직무태만, 반생산적과업행동 및 일탈행동, 이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프장 여성 캐디들의 직무소진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직무요구-자원 모델(Job Demands-Resources Model)을 기반으로 직무소진을 증가시키는 직무요구 요소(양적 업무과부하, 질적 업무과부하, 감정적 요구)와 반대로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직무자원 요소(사회적 지원, 조직지원인식)를 구성하여 직무소진(정서적 고갈, 심리적 계약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 5곳의 골프장에서 근무 중인 캐디 186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SPSS 23.0과 LISREL 8.8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분석, 탐색 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골프장 캐디의 직무요구 중 양적 업무과부하는 직무소진의 정서적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업무과부하는 직무소진의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고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정적 요구는 직무소진의 정서적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골프장 캐디의 직무자원 중 사회적 지원은 직무소진의 정서적 고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계약위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지원인식은 직무소진의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고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골프장의 대표적인 인적자원인 여성 캐디의 직무소진을 줄이는 데 직무요구와 직무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 종사자가 중심을 이루는 골프장 여성 캐디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 간의 비교 연구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 kimtaehee@skku.edu

## 초등학교 체육교과 표현활동 영역에서 한국 민속무용 탐색

김희애\* · 김선희 (국립목포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교과 교육과정 표현활동 영역에서 민속 표현 중 한국의 민속무용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표현활동 영역 중 한국 민속무용의 다양한 활동 구성과 한국 민속무용 수업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첫째, 2015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의 표현활동 영역에서 한국 민속무용 활동은 무엇인가? 둘째, 한국 민속무용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셋째, 신체문화교육으로 표현활동의 한국무용교육이 갖춰야할 대안은 무엇인가? 로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체육교과 교육과정 문서, 교과서, 관련 선행연구를 수집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 영역은 3-4학년 군으로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5-6학년 군으로 민속 표현, 주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요소는 표현의 의미, 기본 동작, 구성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민속무용의 활동이 기재된 학년군은 5학년이며 탐구하기로 농악무, 살풀이춤, 태평무, 승무가 소개되어 있고 신체 표현하기로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이 소개되어 있으며, 감상하기로 동영상 만들기, 포스터 만들기, 소품 제작하기, 공연하기가 소개되어 있다. 둘째, 신체 표현 활동인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은 우리나라 대표 민속무용으로 각 지역의 특색이 담겨있고 한국 민속무용 경험을 통해 우리 민속의 역사와 민속무용의 유래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음악인 국악과 우리의 정서로 무용을 배움으로써 협동과 배려, 다양성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으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배운다. 셋째, 제1차부터 제7차까지는 한국 민속무용을 포함한 표현영역 활동내용이 학년과는 상관없이 포괄적이며 전반적인 교육 영역이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계열별 분류에 의해 5-6학년 군에서 민속 표현을 제시하면서 일부 학년 군에서만 한국 민속무용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5-6학년 군에서 한국 민속무용을 만나지 못한다면 한국 민속무용을 전혀 경험해 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는 한국의 민속무용 교육을 통해 국악의 장단을 알고 한국적 정서와 감정을 느끼며 전통으로부터 창의성을 도모하여 독창적인 표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닫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기에 초등학교 시기에 강강술래, 탈춤, 소고춤 이외에 부채춤, 한량무, 학춤, 대동놀이 등 한국 민속표현 활동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켜 문화유산의 우수함과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민속무용과 함께 궁중무용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속무용은 민간의 노동과 축제를 위한 삶의 춤으로 삶의 공간인 일터와 마당출판에서 추며, 공동체가 대대로 전승하며 양식화된 춤으로 자유로운 감정표현과 즉흥성이 있으며 일상적인 민복을 입고 개인이나 집단동작, 흥과 신명을 푸는 개성적인 춤이라면 민속과 대비되는 궁중무용은 왕명과 행사를 위해 국내에서 창작된 향악정재, 중국 전래의 당악정재와 왕과 왕권수호를 위한 의례 춤이다. 왕의 삶의 공간에서 춤을 추는 관계로 개성적인 표현이 절제되고, 현란한 색채와 세련된 고급의상, 격식을 갖춘 질서정연한 군무다. 민속춤은 민속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춤으로 민속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궁중무용은 우리의 민족이 타 민족과 어떻게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받아들인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고 종묘의 엄숙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민속무용은 우리의 민족 문화와 민속 고유성을 알 수 있다면 궁중무용은 우리 문화의 역사와 가치 그리고 형식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민속무용과 함께 궁중무용을 배운다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와 삶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민속무용과 함께 궁중무용을 배움으로써 한국의 전통이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고 나아가 온고지신의 탄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tmdgy0301@nate.com



##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골프장 재방문의도 분석 : 중년층을 중심으로

박지윤 · 김민정\* · 최나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년층은 노년기를 앞두고 있는 계층이며,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건강과 그에 따른 여가 참여에 관심이 많다. 많은 여가 활동 중 골프는 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여가 활동 중 하나라고 조사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강도 높은 정책이 시행되면서 골프는 실내와 도심에서 벗어나 넓은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운동이라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게 되었다(송리라, 이철원, 사혜지, 2020). 또한 골프는 시간적, 비용적, 그리고 사회 관계적으로 중년층이 다른 어느 계층보다 참여하기 적절한 여가 활동이며, 심리적으로 우울감과 스트레스 역시 감소시켜주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어(김정식, 2016; 민영남, 2016) 참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년층의 골프장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원인을 알아보고, 중년층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인간의 행동변화와 관련된 이론 중 Ajzen(1991)에 의해 개발된 ‘계획적 행동이론(TPB: 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활용하였다. 계획적 행동이론은 행동의도를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지각된 행동통제 총 3가지 요인으로 외부의 다양한 사회적 행위를 예측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이론이다. 또한 계획적 행동이론의 기본 구조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그 행동으로 인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치 있는 결과가 구현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있다(배정섭, 2014).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획적 행동이론을 통해 중년층을 중심으로 골프장 재방문의도에 대한 요인 간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에 따른 가설은 다음과 같다. H1: 중년 참여자의 골프장에 대한 태도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중년 참여자의 골프장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중년 참여자의 골프장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으며, Ajzen(1991)이 제시한 계획적 행동이론(TPB)을 적용하여, 온라인 설문지(google url) 및 온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총 238부가 최종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및 AMO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 참여자들의 골프장에 대한 태도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년 참여자들의 골프장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년 참여자들의 골프장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층의 참여자들 모두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때 재방문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mj8803@hufs.ac.kr

##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의미 고찰

오주연\* · 정유성 (국립목포대학교)

해양스포츠는 오늘날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지리, 환경, 계절의 한계로 청소년들에게는 다소 멀게만 느껴지는 스포츠이다. 스포츠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는데, 직접 하는 스포츠는 한 가지 방식에 불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소년 및 교사들은 해양스포츠는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위해 읽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첫째, 읽는 스포츠란 무엇인가? 둘째, 읽는 해양스포츠에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넷째,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에서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해양스포츠 관련 문학도서 3829권을 검색하였다. 검색한 자료는 자료분석을 위해 문서화하여 주제별 분류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읽는 스포츠란 스포츠에 관해 쓰여진 글로 스포츠 이론서를 포함하여, 기사, 잡지, 수필, 시, 에세이, 소설 등의 문학 서적을 포함한다. 읽는 스포츠는 스포츠 문학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스포츠에 대해 정보, 확인, 성찰의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둘째, 읽는 해양스포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3829권을 해양스포츠 구성 요소 틀로 하여 레저형과 스포츠형으로 분류 하였다. 총 3829권중 레저형330권으로 8.61%를 차지하였으며 스포츠형3499권으로 91.38%를 차지하였다. 스포츠형 해양스포츠 도서가 레저형 해양스포츠 도서보다 83.77%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안수향의 <아무튼 서핑, 2022>과 윌리엄피네건의 <바바리안 데이즈, 2018> 샘 블리클리의 <소울서핑, 2022> 김민영의 <난생처음 서핑, 2020>은 스포츠형 해양관련도서로 서핑을 소재로 하였다. 요즘 주목받고 있는 레저형 해양스포츠인 프리다이빙을 소재로 한 도서로는 제임스네스터의 <깊은 바다, 프리다이빙, 2019> 최재호의 <프리다이빙 산책, 2020>이 있다. <깊은바다, 프리다이빙>작가는 우연한 기회에 프리다이빙 대화를 취재하게 된 것을 계기로 바다와 프리다이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바닷 속에서 생활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과학자를 만나 프리다이빙의 화려함만을 그리기 보단, 지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를 이야기 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우리의 일부라고 설명한다. 셋째, 읽는 스포츠가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해양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 그리고 심리적인 치유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의 대한 기술적인 지식을 물론, 해양스포츠를 하면서 자연스레 해양의 속성을 깨우치며 해양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나아가며 야기될 수 있는 환경문제 등 읽는 스포츠를 통하여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저자가 해양스포츠를 하면서 얻는 성취감, 자신감 향상,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고취와 같은 내적변화를 통하여 심리적 치유효과까지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넷째, 읽는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활용방법으로는 수업 및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보급이 많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융합구성을 통하여 관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동화책에서부터 소설까지, 생애주기별, 연령별로 도서를 권장 및 활용하여 어린 시절부터 해양의 중요성과 해양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다. 다음으로 읽는 해양스포츠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는 하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두고 있지만 읽는 해양스포츠의 영역을 추가하여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문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가 해양스포츠 저변 확대 및 해양산업육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 ojykk001@mokpo.ac.kr



해양레저스포츠무료체험교실, 해양스포츠대회, 해양스포츠이벤트와 같은 해양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현장에서 읽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을 알릴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현장의 교사 및 지도자들로부터 해양스포츠 인문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인문서적에 대한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기능 및 기술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해양소양 및 해양스포츠 소양 함양이라는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알리고 읽는 해양스포츠를 활용하여 해양스포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022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개정을 위한 현장교사의 인식 연구

양한나\* (백석대학교) · 양윤정 (서울대학교)

본 발표는 2022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개정을 위해 현장 특수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것이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변화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정립하고 수업 및 평가 개선을 포함한 교육과정 체제를 전환하고자 교육 주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체계적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을 발표하였는데 교육과정에 제시된 비전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설정되었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중점사항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즉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하며, 지역·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을 구현하고,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초·중등학교 교육을 개선한다는 것이다(교육부, 2022).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심역량으로 건강 관리 능력, 신체 수련 능력, 경기 수행 능력, 신체 표현 능력을 선정하였다(교육부, 2015). 이와 관련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에 제시된 영역 개념은 실제 수업에서 구현되기 어려우며, 총론의 6가지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외 별도의 체육과 역량, 5가지 신체활동 가치를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선행연구가 있었다(유창완, 윤기준, 전세명, 2017). 특히 특수교육 교육과정 체육과에서는 지체장애와 시각장애 학생을 위해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교육과정의 일부 내용을 변형 및 추가한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장애 학생의 경우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동시에 장애로 인한 개인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을 변형하여 적용해야 하므로 그 범위가 더 넓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다.

이에 2022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개정에 앞서 2015 개정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에 대한 인식과 개정에 대한 요구사항,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성 및 지원 등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9명이며, 이들은 특수체육교육과 졸업자이면서 교육경력 10년 이상인자 또는 현장에서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 교육과정을 적용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지역간 거리와 코로나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차는 서면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한 후 2차 조사는 2~3명 소그룹별로 줌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내용을 재확인할 필요할 경우에는 전화로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특수교사들은 2015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체육과를 적용해야 할 대상이 불분명하며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점차 학생들의 장애가 중증화되고 특수학교에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하였다. 둘째, 특수교육 교육과정이지만 공통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며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공통교육과정 체육과의 성격과 목표는 준용하되,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 등에서 장애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중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의 교사 입장에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얽매이게 되고 지나치게 수준이 높은 성취기준의 변형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장애가 드러나지 않는 대안적인 평가준거를 국가적인 수준에 제시하길 요구하고 있었다.

\* hannah@bu.ac.kr

## 남녀의 혼성풋살 참여 경험과 의미 탐색

염희옥\* · 정진옥\*\*(동국대학교)

스포츠계의 혼성 종목이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리우올림픽 대회의 혼성 종목은 승마(6종),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총 9개 종목이었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는 사격(3종목), 양궁, 수영, 트라이애슬론, 유도, 요트, 육상이 추가되면서 총 18종목이 혼성으로 경기를 진행하였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혼성계주가 도입되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성평등을 구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스포츠는 신체 능력이 더 뛰어난 남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자는 뒤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과거의 인식이 점차적으로 변하였고, 엘리트 스포츠에서 생활체육으로까지 혼성스포츠는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혼성풋살이다. 풋살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기장으로 인해 경기장을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고, 남녀 누구나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시대의 절충점을 맞춰 혼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혼성풋살 참여 경험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혼성풋살 활성화와 혼성풋살 관련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확률적표집(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의 하나인 유목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남성 5명, 여성 5명, 총 10명의 참가자를 선정하였다. 인터뷰 질문의 유형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 1인,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원 1인, 혼성풋살팀 창립자 1인, 총 3인의 자문을 받아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반구조화 질문내용은 탐색적 질문(연령, 혼성풋살 경력, 혼성풋살 시작 동기, 혼성풋살 참여 이유)과 심층적 질문(풋살팀 활동 시 가장 중시하는 것, 혼성풋살의 장점, 혼성풋살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등 총 12문항이며, 추가로 자유롭게 참여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혼성 풋살을 시작한 계기는 크게 미디어의 영향,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참여의 자유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여러 사람과 운동하고 싶어서, 집과 가깝고 소속팀이 있어도 일일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등 직접적 정보검색을 통해, 여성은 대체적으로 지인들의 소개로 혼성 풋살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혼성풋살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분위기와 참여자의 성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경우는 지나친 승부욕을 배제하고 즐거운 분위기, 혼성팀은 덜 진지할 것 같다는 선입견과 편견을 깨고 즐겁게 운동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을, 여성은 남성과의 협업을 통해 팀플레이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기술적인 부분과 다양한 플레이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는 팀원들 간의 호흡 및 소통의 중요성, 주인의식을 혼성풋살의 중요성으로 꼽았다.

셋째, 혼성 풋살 활성화를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과 체계적인 경기시스템,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녀비율을 정확히 맞춰 체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응답한 것에 비해, 여성은 지속적인 대회 출전을 통한 동기부여와 코칭에 따른 흥미유발 등 재미요인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응답했다. 남성과 여성 모두 풋살 외에도 다양한 취미 공유하거나 팀 SNS의 원활한 운영이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본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혼성풋살에 참여하는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남녀의 참여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풋살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 worldladies@naver.com

\*\* cjw826@dongguk.edu

참여자들의 경험과 인식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는 풋살 동호인의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인식하는 풋살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혼성으로 진행되는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호흡 중재 운동(TSEEB; Trunk Stabilization Exercise with Expansion Breathing)이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

강의수\* · 정진욱\*\*(동국대학교)

최근 한국에서 사망률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통계청, 2021), 이러한 노인의 90.9%에서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앓고 있으며(Lee & Yang, 2014), 이 중 60%의 노인에서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남순 등, 2017; 정최경희, 2015). 요통은 주로 역학적, 퇴행적 및 심리적인 요인 등이 상호 연관되어 발생하며(Borenstein, 2001), 만성요통으로 진행될수록 신체적 및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남과 동시에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봉길 & 윤형기, 2019). 만성요통 환자의 75%에서 수면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azir et al., 2020), 수면 장애로 인한 총 수면 시간의 감소는 허리 통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Afolalu et al., 2018) 만성요통 환자의 수면의 관리가 중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만성요통 노인은 노화와 관련된 노인의 특성과 만성요통 환자의 특성 모두 가지고 있어 수면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법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요통과 관련된 체력 및 기능장애와 같은 신체적 요인들과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정서적인 요인 모두에게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이여 하고, 이러한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한 호흡 중재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TSEEB(Trunk Stabilization Exercise with Expansion Breathing) 프로그램은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성요통 노인의 신체 및 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개발된 운동 프로그램이다. 만성요통 노인의 통증, 체력 및 근 기능 개선을 위한 체간 안정화 운동과 수면 개선을 위한 호흡 중재법인 복부 확장 호흡 기법을 결합한 운동이다. TSEEB 프로그램의 모든 체간 안정화 운동을 실시하는 동안 복부 확장 호흡 기법을 실시한다.

TSEEB 프로그램이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통을 진단받고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최근 1개월 간 항우울제 및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의 만성요통 노인 28명을 모집하여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TSEEB 그룹은 8주간의 TSEEB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TSE 그룹은 별도의 호흡 중재에 대한 지시 없이 TSEEB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체간 안정화 운동만을 8주간 적용하였다. 두 그룹 모두 8주간의 운동 프로그램 적용 전·후 수면양상(수면잠복기, 수면 중 각성 시간, 총 수면 시간, 수면 효율), 수면의 질, 신체활동(신체활동량, 신체활동소비에너지, 좌식행동, 저강도 신체활동, 중·고강도 신체활동), 체력(하지 근력 및 근지구력, 상지 근력 및 근지구력, 하지 유연성, 상지 유연성, 민첩성 및 동적 평형성, 전신지구력), 통증, 요통 기능장애, 피로, 우울에 대한 검사를 측정하여 두 그룹의 운동 적용 전·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수면양상은 Actigraphy(w-GT3X-BT), 수면의 질은 피츠버그 수면의 질 지수, 신체활동은 Actigraphy(w-GT3X-BT), 체력은 노인체력검사, 통증은 시각적 통증 척도, 요통 기능장애는

\* 01062463380@naver.com

\*\* cjw826@dongguk.edu

오스웨스트리 기능장애 지수, 피로는 피로도 평가 척도 우울은 노인 간이 우울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면 잠복기( $p=.001$ ), 수면 중 각성 시간( $p=.048$ ), 총 수면 시간( $p=.046$ ), 수면 효율( $p=.014$ )에서 시기 $\times$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통증( $p=.045$ ), 피로( $p=.041$ ) 및 우울( $p=.040$ )에서 또한 시기 $\times$ 집단 간의 상호작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8주간의 TSEEB 프로그램의 적용은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증, 피로 및 우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SEEB 프로그램은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만성요통 노인의 수면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으로 임상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서제희, 정연, 이용주 & 석희태. (2017). 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건강 현황과 보건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모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최경희, 김남순 & 박현영. (2015). 국내 장노년층 만성통증의 현황과 과제. 주간 건강과 질병, 8(31), 728-734.
- 최봉길 & 윤형기. (2019). 자이로토닉 운동이 만성요통을 가진 여성노인 의 요부근력 및 통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6), 1375-1382.
- Afolalu, E. F., Ramlee, F., & Tang, N. K. Y. (2018). Effects of sleep changes on pain-related health outcomes in the general population: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studies with exploratory meta-analysis. *Sleep Medicine Reviews*, 39, 82-97.
- Borenstein, D. G. (2001). Epidemiology, etiology, diagnostic evaluation, and treatment of low back pain. *Current Opinion in Rheumatology*, 13(2), 128-134
- Nazir, S. N. B., Akhtar, S., & Baig A. A. M. (2020). Frequency of sleep disturbance with chronic low back pain: a cross sectional study. *J Pak Med Association*, 70(5), 869-871.
- Lee, S.-H., & Yang, S.-O. (2014). The Effects of Chronic Musculoskeletal Pain and Depression 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by Gender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21(1), 21-30.

## 필드하키 특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HST; Hockey Specific Training)이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 관련 체력 및 GPS 변인에 미치는 영향

최민경\* · 정진욱\*\*(동국대학교)

지난 20년 동안, 필드하키 경기는 빠르고 역동적인 경기 흐름과 많은 득점 기회를 얻기 위해 오프사이드 페지(조명준, 2009)와 셀프 패스(self-pass)와 셀프 드리블(self-dribble) 규칙을 도입하였다(FIH, 2009). 필드하키 경기 규칙 변경 전, 선수들의 총 뒀 거리는 6.5km로 나타났으며, 변경 후의 총 뒀 거리는 4.9km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고강도 러닝은 총 뒀 거리 대비 5.6%에서 12% 정도로 나타나 고강도 움직임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Gabbett, 2010b, Macutkiewicz & Sunderland, 2011; McGuinness et al., 2019a; White & MacFarlane, 2013). 고강도 러닝과 스프린트와 같은 간헐적 무산소성 움직임은 경기 규칙 변경 전보다 중요한 경기력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Kapteijns et al., 2021; McGuinness et al., 2019a), 최근에는 필드하키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는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한 종목 특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종목 특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선수들의 기술, 체력 및 전술 능력(Halouani et al., 2014; Mazurek et al., 2018)과 의사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인지 개선(Tenenbaum & Gershgoren, 2015) 및 집중력과 의욕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Aschendorf et al., 2019). 하지만, 현재 러닝 기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적용한 필드하키 연구들은 다수 있지만 필드하키 종목의 고유기술과 다양한 움직임이 가미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필드하키 특이적 트레이닝 프로그램(HST; Hockey Specific Training) 개발하여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 관련 체력 및 GPS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HST(Hockey Specific Training) 프로그램은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필드하키 종목만의 고유기술과 경기 시 나타나는 다양한 움직임을 응용하여 개발된 필드하키만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다.

HST 프로그램이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 관련 체력 및 GPS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의학적으로 특이조건이 없고, 최소 5년 이상 선수 경력이 있는 선수로 총 20명의 선수를 모집하여 10명씩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HSTG는 HST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BFTG는 현장에서 실시되는 기존 필드하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6주간, 주 3회, 40분으로 진행되었다. 6주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전·후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경기 관련 체력(유·무산소성 및 회복 능력, 스프린트 및 직선 스프린트 드리블 및 민첩성과 민첩성 드리블)과 GPS 변인(총 뒀 거리, 저강도 및 고강도 거리와 비율, 스프린트 거리와 비율, 스프린트 횟수, 최대 속도, 가속 횟수 및 감속 횟수)을 측정하였다. 모든 데이터 자료들은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으로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였으며, 6주간의 프로그램에 따른 경기 관련 체력과 GPS 변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Two-way repeated measure ANOVA)를 실시하였다. 시기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요인은 그룹 내 시기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분석하였으며,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 junochoi89@naver.com

\*\* cjw826@dongguk.edu



연구 결과, 트레이닝 프로그램 따른 경기 관련 체력 차이에서 유·무산소성 및 회복 능력, 스프린트 및 직선 스프린트 드리블 및 민첩성과 민첩성 드리블에서 모두 통계적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따른 GPS 변인 차이에서는 저강도 및 고강도 러닝 거리 비율에서 통계적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시기에 따른 차이에 대한 그룹 내 단순주효과(Simple main effect)를 분석한 결과, 스프린트 거리와 비율, 스프린트 횟수, 최대 속도 및 가속 횟수에서 HSTG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주간의 HST 프로그램은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 관련 체력에 기존 필드하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GPS 변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ST 프로그램은 엘리트 필드하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 생각된다.

## 플립러닝 기반 커버댄스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조성,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 이선경 (명지대학교)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본 연구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초등교육 현장의 실정과 더불어 COVID-19 Pandaemic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의 비활동적 운동습관의 개선과 자기주도적 학습 유도를 위한 교육적 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 플립러닝을 기반한 커버댄스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프로그램 적용에 따른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플립러닝을 기반한 커버댄스 프로그램 실시 집단(FG, n=13)과 기존의 대면수업 방식의 커버댄스 프로그램 실시 집단(CG, n=11)으로 나누어 12주간 주 2회 60분씩 총 24차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27 v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집단(FG)과 대조집단(CG)의 신체조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대한 측정시점(사전, 사후)과 집단 간 각각의 주효과 및 측정 시점과 집단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 반복측정 분산분석(Two-way RM ANOVA)을 실시하였고 단순효과를 t-검증(t-test)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신체조성의 경우, 체중을 제외한 신장( $p<.001$ ), 근육량( $p<.001$ ), 체지방률( $p<.01$ ), 체질량지수( $p<.05$ )에서 측정시점의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주효과와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시점 간의 단순효과에서 신장은 FG( $p<.001$ )와 CG( $p<.01$ ) 모두 증가하였고, 근육량도 FG( $p<.001$ )와 CG( $p<.05$ )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체지방률은 두 집단 모두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p<.05$ ), 체질량지수의 경우 CG( $p<.05$ )에서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결과, 하위요인인 '학습계획'( $p<.01$ )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전체 점수'( $p<.05$ )에서 측정시점의 유의한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의 주효과와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측정시점 간의 단순효과에서 '학습계획'은 FG와 CG 모두 사전측정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05$ ), '자기주도 학습능력 전체 점수'에서는 FG만 사전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5$ ). 하위요인인 '학습실행'에서는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시점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 측정시점의 단순효과는 FG에서만 사전에 비해 사후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단순효과에서는 사후측정에서 FG의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1$ ).

이상의 결과를 통해 12주 동안 커버댄스 실시는 플립러닝 적용 여부를 떠나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증가시켜 신체조성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수업방식보다 플립러닝 기반 커버댄스 프로그램 적용 집단의 더 긍정적 결과는 디지털 기반 온·오프라인 연계 및 학습에 있어서 자기 주도성을 함양하는 체육, 무용관련 교육 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 mj8803@hufs.ac.kr